

코넥스

KONEX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 [마케팅용 한정판]

코넥스(KONEX)란?

코넥스(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KRX)에 의해 '13년 7월 1일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 거래 시장임.

왜 지금 코넥스시장을 주목해야 할까?

개설 만 2년을 맞이한 코넥스시장은 '코스닥 이전시장'이라는 시장의 목표가 뚜렷해지며, 상장기업수 및 시가총액, 거래대금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고 평가되며 지속성장 중에 있음.

'15년 6~7월 코넥스시장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 ①코넥스 상장을 위한 기업들의 상장외형 요건이 전면 폐지되고(15/6/12),
- ②지정자문인 확대(15/6/12), '특례상장제도' 도입(15/7/6),
- ③일반투자자의 최저 예탁금규제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15/6/29),
- ④연간 납입가능금액 3천만원의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 도입(15/7/27)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 및 조건이 대폭 개선되며, '15년 신규상장 220개(코스피 20개+ 코스닥 150개+ 코넥스 50개) 기업을 목표로하는 갈길 바쁜 IPO 시장에도 특례상장, 스펙 합병상장 등과 함께 코넥스 기업의 신규 상장 및 이전상장이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

코넥스시장 현황

'13년 7월 개설 이후 현재까지 상장사, 시가총액, 거래규모 등 비약적인 발전.

- '13년 7월 21개 상장법인으로 시작해 '15년 7월 기준 총 84개사로 확대.
- 개설일 시가총액 합계 4,689억원에서 현재 4조 2,522억원으로 9.1배 증가
- (월간)일평균거래량 7.1 → 24.5만주, (월간)일평균거래대금 4.4 → 35.5억원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중 코스닥시장 변경상장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을 추천.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엘앤케이바이오(156100), 비엔디생활건강(215050), 드림티엔터테인먼트(220110)을 포함해 15개 기업을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성 또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기반한 코넥스시장 유망기업으로 선정함.

BNK스몰캡

최종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이승은

ana0128@bnkfn.co.kr
(02)3215-7560

박세진

sjpark@bnkfn.co.kr
(02)3215-1527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보고서

- 현성바이탈(204990)
- 엔지켐생명과학(183490)
- 엘앤케이바이오(156100)
- 엠지메드(180400)
- 피노텍(150440)
- 에이비온(203400)
- 아시아종묘(154030)
- 대주이엔티(114920)
- 비엔디생활건강(215050)
- 드림티엔터테인먼트(220110)
- 태양기계(116100)
- 에스티(122640)
- 그린플러스(186230)
- 디피앤케이(189700)
- 닉스테크(063840)

꾸림정보

-
- I. 초록 (Abstract) _ 03
 - II. 코넥스(KONEX)란? _ 04
 - 1. 코넥스시장 개요
 - 2. 코넥스시장의 특성
 - III. 왜 지금 코넥스시장을 주목해야 할까? _ 07
 - 1. 코넥스시장 두돌, 새로운 시작
 - 2. 갈길 바쁜 IPO시장
 - IV. 코넥스시장현황 _ 12
 - 1. 시장개설 이후 개래동향
 - 2. 코넥스시장 속에 꽃으로 피어난 이전 상장
 - 3. 코넥스 상장기업 현황
 - 4. 코넥스 상장기업 관심주와 추천주
 - V. 코넥스 상장기업 리포트 _ 23
 - 1. 현성바이탈 (204990)
 - 2. 엔지캠생명과학 (183490)
 - 3. 엘앤케이바이오 (156100)
 - 4. 엠지메드 (180400)
 - 5. 피노텍 (150440)
 - 6. 에이비온 (203400)
 - 7. 아시아중묘 (154030)
 - 8. 대주이엔티 (114920)
 - 9. 비엔디생활건강 (215050)
 - 10. 드림티엔터테인먼트 (220110)
 - 11. 태양기계 (116100)
 - 12. 예스티 (122640)
 - 13. 그린플러스 (186230)
 - 14. 디피앤케이 (189700)
 - 15. 닉스테크 (063840)
-

I. 초록 (Abstract)

2013년 7월 1일 ‘코넥스(KONEX)시장’이 개설될 때, ‘이건 뭐지?’라는 궁금증 이외에는 기존 주식시장 참가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체감한다. 기존의 코스닥시장이나 프리보드(개편전 K-OTC)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들이 한쪽은 벽이 높아지고, 다른 한쪽은 관심이 약화되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까지 시장개설 1년이 지나며, 거래금액이 감소하는 등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4년 7월 아진엑스텍을 시작으로 코넥스 상장기업 6개사의 코스닥 침공(이전상장)이 이어지는데, 10월 메디아나, 12월 랩지노믹스와 하이로닉 등 의료기기 3사의 이전상장은 코넥스시장의 저력을 확인해 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코넥스 상장일 대비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증가하여 거래되고 있다.)

초기 중소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의 시현을 기대하며 시작된 코넥스시장은 상장법인과 시장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이라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심어주며, 상장 기업 증가 및 거래대금 및 시가총액 증가 등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우량 중소형 기업의 신규 상장시 치열해진 공모주 청약 경쟁으로 코넥스시장 투자가 기존의 기관투자자에게도 합리적인 초기 투자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게 되며, 기관 자금 유입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두돌을 맞은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 2년간 코넥스시장에 대해 가장 많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개인투자자의 기본 예탁금 3억원이 6월 29일부터 1억원 이상으로 하향되고, 7월 27일부터 연간 3천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한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개설된다.

이제 코넥스시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있는 시점이라고 평가하며, 독보적인 기술력 또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코넥스시장에서 명예로운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우량 코넥스 기업들을 선정해 보았다.

Fig. 1: 코넥스(KONEX) 2013년 7월 1일 개설



출처: 한국거래소(코넥스), BNK투자증권

II. 코넥스(KONEX)란?

1. 코넥스시장 개요

코넥스(KONEX): 초기중소기업 주식 거래 시장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 7월 1일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 거래 시장이다.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KOSPI), 코스닥(KOSDAQ)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으로서,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주권상장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다만 2013년 개설 당시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 등으로 시장참가자를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축소하는 등 중소기업 주식의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하는 동시에 상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간소화하여 시작하였다.

초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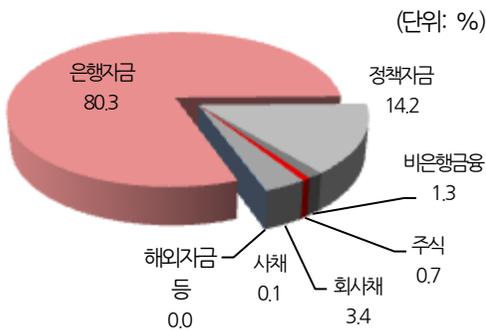
코넥스시장의 주요 목적은 초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고,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비용 증가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KBIZ)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조달비중이 2012~2013년 전체 외부자금 조달 중 80%대 전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는데, 이에 비해 주식 발행 조달 비중은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코스닥시장이나 프리보드(개편전 K-OTC)의 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코스닥시장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상장요건 강화로 인해 발전단계의 중소기업 대상 시장으로 변모하여 초기 중소기업은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 실제 중소기업이 설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4년 평균 9.3년이었는데, 2012년 기준 평균 12.7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이를 보완해야할 프리보드는 계속된 거래부진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

코넥스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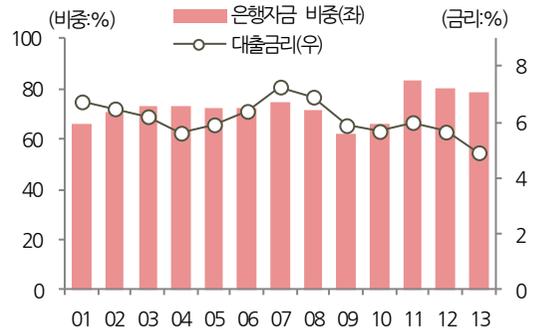
2013년 7월 1일 개장한 코넥스시장은 현재까지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의미 있는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데, 2014년말 기준 23개사가 40회의 유상증자(공모/사모), 전환사채, 교환사채를 발행을 통해 총 814억원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각사의 공시를 바탕으로 합산할 결과 2015년 상반기까지 총 1,077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한 자금은 공장신축 및 신제품/신사업의 연구개발 자금 등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되었다. 지금까지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지만, 2014년 7월 아진엑스텍을 시작으로 6개 코넥스 상장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코넥스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6월 베셀의 이전상장, 8월에는 판도라 티비의 스펙 합병이 예정되어 있으며, 엑시콘, 칩스앤미디어 등은 코스닥 이전 상장을 결정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Fig. 2: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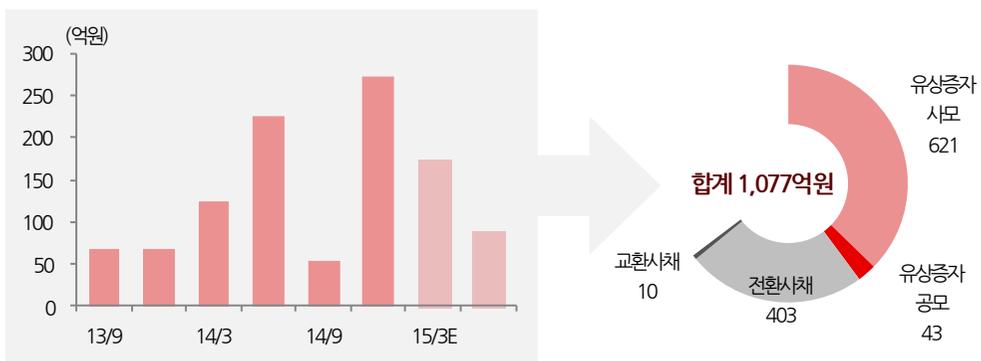
주: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2012년 기준)
출처: 중소기업중앙회(KBIZ), BNK투자증권

Fig. 3: 중소기업 외부자금(은행자금) 조달비중



주: 2013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014중소기업현황
출처: 중소기업중앙회(KBIZ), BNK투자증권

Fig. 4: 코넥스 자금조달 실적



주: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 발표 확정치, 2015년은 각사의 공시를 집계한 잠정치
출처: 한국거래소(코넥스시장의 이해), BNK투자증권

2. 코넥스시장의 특성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 상장 요건 최소화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유가증권, 코스닥시장과 달리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상장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장요건을 최소화하였다.

일반투자자의 참여 제한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설계

코넥스시장은 일반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투자위험이 높고, 중소기업 주식의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하게 위해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은 기본 예탁금을 면제하는 등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설계되었는데, 일반투자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 코넥스시장 참여가 가능하다(2015년 6월 29일 1억원 이상으로 완화).

2015년 7월 현재까지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코넥스시장 거래대금 1,556억원 중 개인 거래대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매수대금 1,122억원, 매도대금 1,055억원), 기관 거래대금(매수대금 319억원, 매도대금 156억원)과 기타법인 거래대금(매수대금 110억원, 매도대금 343억원)이 시장 초기 대비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부담 완화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 코스닥시장과 비교하여 공시의무, 기업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상장법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공시의무의 경우 수시공시 항목을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8항목)하고, 분/반기 보고서를 면제하는 등 공시의무 범위를 완화하였다.

또한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하여 합병요건(우회상장 포함)을 완화하고, 대량매매제도와 경매매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2014년 10월 주력용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퓨얼셀파워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연료전지시장에 진출하려는 두산(코스피)과 합병하였고, 2014년 11월 매니지먼트사인 판타지오는 에듀컴퍼니(코스닥)와 합병하여 판타지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코스닥 이전 상장 지원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들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서 코스닥상장을 계획하는 기업이 코넥스상장을 통해 보다 손쉽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기업규모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하여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제도를 통해 코스닥 이전 상장시 일부 질적요건(기업의 계속성) 심사면제 및 상장심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7월 아진엑스텍, 10월 메디아나, 테라셈, 12월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아이티센시스시스템즈 등 총 6개 회사가 코스닥시장으로 변경상장을 성공했고, 2015년 6월 베셀, 8월 판도라TV(스팩 합병) 등 코넥스시장을 통한 코스닥 변경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III. 왜 지금 코넥스시장을 주목해야 할까?

1. 코넥스시장 두돌,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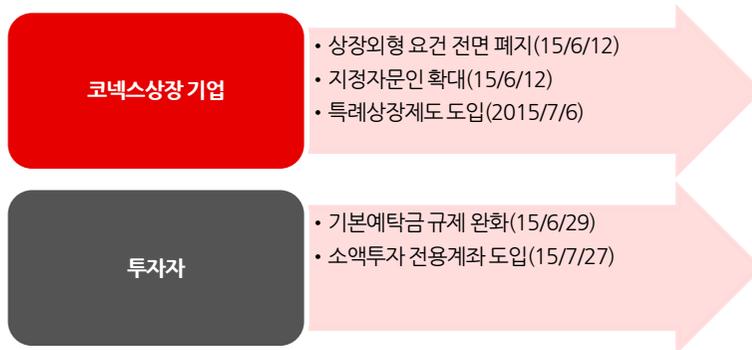
코넥스시장 개설 2년 주목해야할 변화들

2013년 7월 1일 개설되어 거래를 시작한 코넥스시장이 개설 만 2년차를 맞이하였다. 코넥스 시장 2년간 ‘코스닥 이전상장’이라는 시장의 목표도 뚜렷해 지며, 상장기업수 및 거래대금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2015년 4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에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2015년 6월~7월 코넥스시장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6월 ①상장외형 요건이 전면 폐지되고, ②지정자문인이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 모두가 희망하던 ③기본예탁금 규제가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7월에는 특례상장제도 도입, 그리고 ④코넥스 상장 기업 투자를 위한 연간 3천만원 이하의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상장외형 요건 전면 폐지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들의 상장외형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2015년 6월 12일). 기존의 코넥스시장 상장 심사의 기존 외형 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3가지 중 하나의 재무요건을 충족해야했는데,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는 초기의 중소기업들을 위해 이마저도 제한을 풀어버렸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과 비교하면, 설립연수, 지분분산, 자본상태, 지배구조 등은 코넥스시장 설립부터 면제되었고, 외형 요건까지 전면 폐지되면서, 감사의견(최근사업연도 적정)과 액면가액(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요건만 남게 되었다.

Fig. 5: 코넥스시장 개설 2년 주요한 변화



출처: 한국거래소, BNK투자증권

지정자문인 확대와 특례상장제도 도입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 폐지와 함께 지정자문인이 확대된다(2015년 6월 12일). 기존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거래소가 선정한 지정자문인(16개사) 중 1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신규상장신청이 가능했는데, 향후에는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을 허용해 16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함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자문인 없이도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를 도입한다(2015년 7월 6일). 거래소가 기업의 기술성, 공시 능력, 경영 투명성, 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및 동의 등을 충족한 기업은 지정자문인 선임이 면제되며, 특례상장 기업은 신설된 ‘스타트업 기업부’에 배치하고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은 제한된다.

개인투자자 예탁규제금 완화(3억원→ 1억원)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투자시 최저 예탁금규제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2015년 6월 29일). 기존 일반투자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현금 및 대응증권 포함)을 예탁한 자에 한하여 코넥스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기본예탁금 완화는 코넥스시장 참여자 및 증권업계 등 코넥스시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속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에 대해서는 기존 1억원의 기본예탁금 제도와 3억원 미만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예탁금의 30%)도 함께 폐지된다.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미만) 도입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상장 기업 투자를 위해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도입된다(2015년 7월 27일). 연간 납입가능금액 3천만원까지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 가능한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는 전 증권사에서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기본예탁금 규제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소액투자자들도 연간 3천만원까지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기본예탁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하향되고, 3천만원 이하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게 되므로, 사실상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이 큰 폭으로 완화되어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판단한다.

코넥스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의 +-15%가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권사는 코넥스 투자자에 대해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투자성향 평가를 거쳐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투자자 보호책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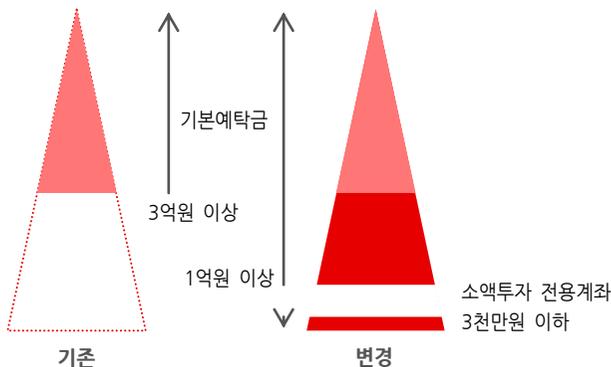
코넥스상장 외형요건 폐지, 지정자문인 확대 및 특례상장 도입, 기본예탁금 하향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개설 등 주요한 변화 이외에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의 스펙(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가 추진 된다. 코스닥에 상장된 스펙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상장심사를 신속이전 상장(Fast Track)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2014년 8월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판도라티비(202960)는 코넥스 기업 중 최초로 스펙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진행하여 2015년 8월 하나머스트3호스펙(208870)과 합병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스펙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향후 코넥스 기업의 더 많은 이전상장이 기대된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코넥스 상장 주식을 2%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코넥스주식, 비우량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코넥스시장과는 별도로 우량비상장기업 주식 장외거래 시장인 K-OTC에 주식유통이 가능한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2부 시장인 K-OTC BB를 추가 개설하여, 호가/체결 내역을 게시하게 된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 초기 중소기업 투자→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 및 수익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선순환을 기대해 본다.

Fig. 6: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하향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개설



출처: 한국거래소, BNK투자증권

2. 갈길 바쁜 IPO시장

2015년 한국거래소의 신규상장 목표 기업수 220개

한국거래소는 2015년 220개의 기업을 주식시장에 신규상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세 곳의 증권시장에 각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0개사, 코스닥시장 150개사, 코넥스시장 50개사를 신규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2013년은 총 94개사, 2014년은 유가증권 7개, 코스닥 66개, 코넥스 34개 등 총 109개사가 신규상장된 것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목표치이다. 게다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수는 연초에 발표했던 100개사에 대해서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목표를 150개로 더 높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00년~2002년 연간 150~180개가 신규상장한 이후 10년 넘게 연간 100개를 넘긴 적이 없었다.

높은 목표치의 달성 여부는 특례상장, 스팩, 코넥스에 달려 있어

한국거래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성 특례상장과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증시에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술성 특례상장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초기 중소기업이 영업이익 등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상장시키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신약 개발을 진행하며 초기 임상비용 투자가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했다. 2015년 거래소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술기업상장부'를 신설하고, 집중적인 유치를 통해 2014년 2개에 그친 기술성 특례 상장을 올해 2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거래소의 신규상장 기업 목표치 달성의 두번째 키워드는 스팩이다. 스팩은 비상장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2009년 도입되었다. 현재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콜마 그룹의 콜마비엔에이치는 2014년 8월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스팩과 합병 결정하여 2015년 1월 증시에 상장되었고, 합병상장 이후 약 8,800억원의 시가총액이 계산되는 바디텍메드는 NH스팩2호와 8월 합병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시가총액 1조원 전후 우량기업의 스팩 합병도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판도라티비는 코넥스 상장 기업중 처음으로 하나머스트3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2015년 8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진행 중이다. 2014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우량 비상장기업과 합병을 준비 중인 스팩이 현재 21개이고, 2015년 상반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23개 기업 중 17개가 증권사들의 스팩 증권일 정도로 최근 코스닥시장에서의 스팩 합병상장은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신규상장 목표 달성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이 코넥스시장이다. 2015년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 목표 기업수가 50개에 달해 이 역시 3년차를 맞이한 코넥스 시장 최대치인데, 이는 코넥스 신규 상장 외형요건 폐지, 코넥스 특례상장(스타트업)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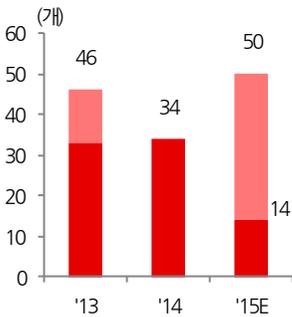
여기에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며,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2014년 아진엑스텍, 미디어나, 테라셀,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아이티센 등 총 6개 기업 2015년 6월 베셀, 등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되었고, 엑시콘, 칩스앤미디어 등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진행 중이며, 현재 준비 중인 기업까지 더한다면 전년의 6개 이전 상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80여개 기업들이 상장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코스닥 신속상장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 뿐 아니라 코스닥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길 바쁜 IPO시장 상반기 달성률은?

평년 대비 높은 신규상장 목표치를 제시한 한국거래소로서는 갈길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다. 6월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2개, 코스닥 23개, 코넥스 14개로 상반기 목표 달성률은 거래소 10%, 코스닥 15%, 코넥스 28%이다. 낮은 달성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신규상장이 집중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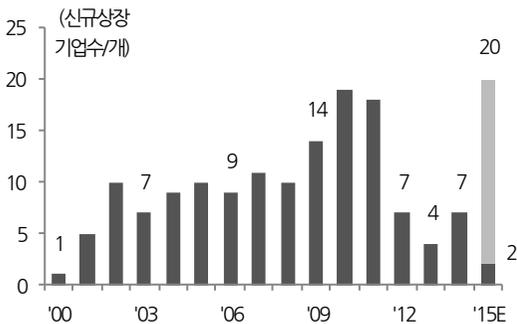
구조를 감안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월말 재무제표가 감사 보고서와 함께 확정되고, 4월~5월부터 상장심사청구를 하면 6월 이후부터 기업들의 상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014년 역시 코스피는 상반기 1개, 하반기 6개, 코스닥은 상반기 8개, 하반기 58개, 코넥스는 상반기 10개, 하반기 24개의 신규상장이 있었다. 2015년 하반기 IPO시장은 기술성특례상장, 스펙상장 및 상장합병 그리고 코넥스 상장 기업의 이전상장에서 각각 얼마나 신규상장 기업들을 배출해 내느냐가 올해 거래소의 목표치 달성 근접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Fig. 7: 코넥스 신규상장 기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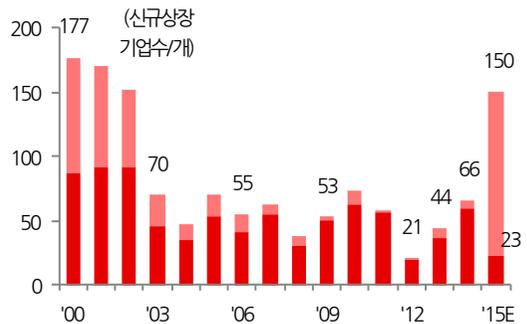
주: 코스닥 이전 상장 포함
출처: 한국거래소(KRX), BNK투자증권

Fig. 8: 코스피시장 연간 신규상장 기업수



주: 재상장 기업 제외, 인덱스펀드 및 부동산리츠, 선박금융 등 제외
출처: Quantwise, 한국거래소(KRX), BNK투자증권

Fig. 9: 코스닥시장 연간 신규상장 기업수



주: 재상장 기업 제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코스피 이전 상장 포함
출처: Quantwise, 한국거래소(KRX), BNK투자증권

IV. 코넥스시장 현황

1. 시장개설 이후 거래동향

상장 기업 현황

2013년 7월 시장개설 당시 21개사의 상장법인으로 시작한 코넥스시장은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해 총 76개사가 추가되어, 총 97개사가 신규로 상장되었다. 이전상장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해 13개 기업이 상장폐지되어 2015년 7월 현재 총 84개사가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다.

2015년 3월 비엔디생활건강을 시작으로 4월 현성바이탈, 이엘피, 원텍, 썬테크, 5월에는 관악산업, 툴론 등이 상장되었고, 지티스웰니스, 나오바이오시스, 씨앗 및 드림텐터테인먼트와 핸드포스트, 유투바이오, 바이오코아까지 6월에만 7개 기업이 신규상장되었고, 네추럴에프앤피, 구름컴퍼니, 솔트웍스 등 3개사가 7월 추가되었다. 여기에 프림라인생명과학은 상장청구서의 승인을 마치고 신규상장을 준비 중이고, 제놀루션, 엔에스컴퍼니, 정다운, 태미세미콘, 퓨처캠 등이 신규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일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개설 이후 시가총액/거래량/거래대금의 증가

코넥스시장의 시가총액은 시장개설일(2013/7/1) 4,689억원을 기록하며 개시되었는데, 현재(2015/7/24) 4조 4,252억원으로 9.1배 증가하였으며, 2013년 7월 일평균거래량 7.1만주, 거래대금 4.4억원에서 2015년 7월 일평균거래량 24.5만주, 거래대금 35.5억원으로 각각 3.4배, 8.1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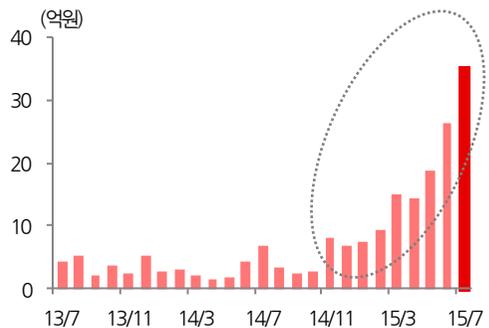
이러한 코넥스시장의 시가총액 및 거래 증가는 2014년 하반기 이후 코스닥 시장으로 변경상장한 7개 기업이 평균 634억원의 시가총액으로 졸업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상반기 시장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의 증대는 눈에 띄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어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된다.

Fig. 10: 코넥스시장 시가총액과 상장기업수 추이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1: 월간 코넥스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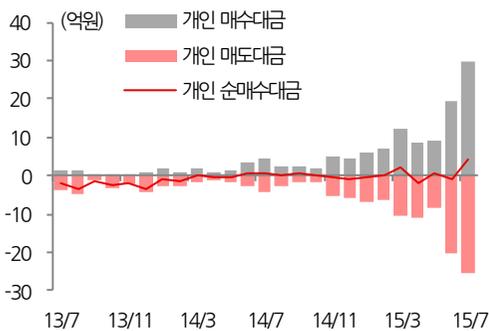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개인/기관 거래 추이: 기관투자 자금의 시장 유입 확대 중

코넥스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는 개인 거래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4년 코스닥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견조한 주가 상승 흐름과 시가총액 1천억원 전후의 코넥스 상장기업들이 증가하며,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코넥스시장이 개설된 2013년 7월 이후 6개월간 일평균 3.0억원의 매수대금을 기록하며 국내 기관 투자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었는데, 2014년 상반기 일평균 0.7억원, 하반기 1.1억원으로 매수대금이 급감했다가 2015년 상반기 2.9억원으로 기관 매수대금이 다시 확대되었고, 5월 일평균 7.1억원, 6월 4.8억원, 7월 4.8억원 등 최근 3개월간 기관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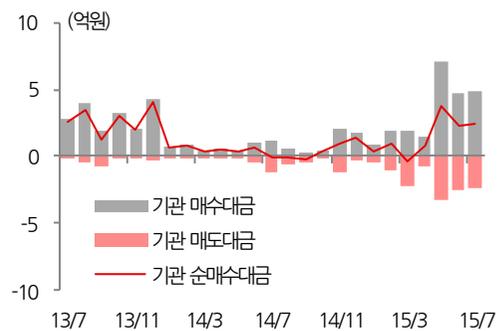
현재 코넥스시장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엔지켐생명과학은 2014년 11월을 기점으로 기관 매수대금이 유입되기 시작되었고,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엑시콘은 2015년 4월부터 기관 매수가 집중되었다.

Fig. 12: 개인 월간 일평균 매수/매도/순매수 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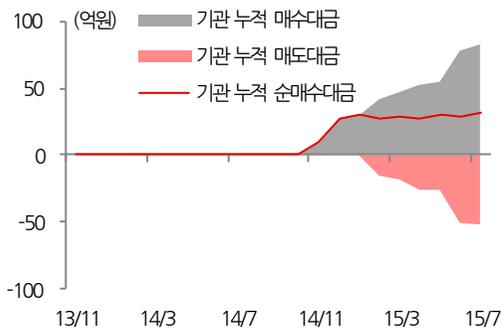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3: 코넥스 월간 기관 매수/매도/순매수 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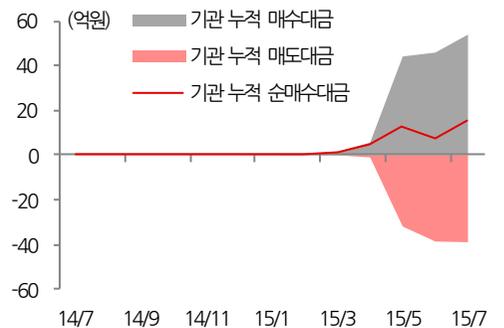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4: 엔지켐생명과학 기관 누적 거래대금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5: 엑시콘 기관 누적 매수/매도/순매수 대금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2. 코넥스시장 속에 꽃으로 피어난 이전 상장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현황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1일 개설되어 이제 만 2년이 되었다. 초기 중소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의 시현을 기대했는데, 시장 거래 증가, 기관 자금 유입 증대 등 시장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코넥스시장의 거래 활성화 및 시장 기능의 작동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는 코넥스시장 속의 ‘꽃’이라고 판단하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변경상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014년 7월 아진엑스텍을 시작으로 메디아나, 테라셀,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아이티센 등 총 6개 기업이 코넥스시장을 졸업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에 성공했는데, 2014년 10월에는 퓨얼셀(연료전지)이 유가증권 시장의 두산(000150)으로, 11월에는 판타지오(매니지먼트)가 코스닥시장의 에듀컴퍼니(032800)으로 피흡수합병된 것까지 감안하면, 2014년 하반기 총 8개 기업이 코넥스시장을 통해 새로운 곳으로 등지를 틀었다. 또한 2014년 변경상장에 성공한 6개 기업이 변경 상장 전후로 견조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코넥스 상장기업과 투자자들은 코스닥 변경상장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코넥스시장은 더욱 빛을 발하는 선순환 흐름에 올라탔다. 2015년 6월 베셀(177350)의 변경상장, 8월 예정인 판도라티비의 하나머스트3호스팩(208870) 합병, 하반기 진행될 엑시콘(092870)과 칩스엔미디어(094360)의 변경 상장을 비롯해 약 10개 가까운 기업들이 명예로운 졸업을 기다리고 있다.

Fig. 16: 코넥스시장 기업의 이전상장 및 인수/합병(M&A) 현황

회사명 (코드)	업종	코넥스 상장일 / 상장일 시가총액	변경시장	변경 상장일 / 변경일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	비고
아진엑스텍 (059120)	반도체	'13.7.1 428억원	코스닥	'14.7.24 414억원	401억원	이전상장
메디아나 (041920)	헬스케어 (의료기기)	'13.7.1 179억원	코스닥	'14.10.7 418억원	1,921억원	이전상장
테라셀 (182690)	반도체	'13.10.11 484억원	코스닥	'14.10.30 400억원	453억원	이전상장
랩지노믹스 (084650)	헬스케어 (의료기기)	'13.7.1 155억원	코스닥	'14.12.16 698억원	1,969억원	이전상장
하이로닉 (149980)	헬스케어 (의료기기)	'13.7.1 226억원	코스닥	'14.12.17 1,694억원	2,206억원	이전상장
아이티센 (124500)	컴퓨터서비스	'13.7.1 455억원	코스닥	'14.12.23 326억원	862억원	이전상장
퓨얼셀 (139170)	IT부품 (연료전지)	'13.7.1 315억원	유가증권	'14.10.30 403억원	-	피흡수합병 → 두산(000150)
베셀 (177350)	LCD 자동화장비	'13.7.1 141억원	코스닥	'15.6.19 428억원	426억원	이전상장
판도라티비 (202960)	미디어 (UCC동영상)	'14.8.11 146억원	코스닥	'15.8.21 -	464억원	스팩합병 → 하나3호(208870)

주: 변경상장일은 코스닥 상장일 기준/ 변경일 시가총액은 변경일 -1일 기준 코넥스시장에서의 마지막 종가
출처: BNK투자증권, Quantwise / 현재가 기준일 2015년 7월 24일

미디어나,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등 변경 상장 전후 추세적인 주가 상승 기록

무엇보다 이전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승 추세가 매우 놀라운데, 그 중 헬스케어 업종에 의료기기 기업들인 미디어나(환자감시장치, 심장제세동기), 랩지노믹스(유전자/분자진단), 하이로닉(피부미용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3사가 주목 받았다. 이 세 기업들은 모두 2013년 7월 1일 코넥스시장 개설과 함께 상장되었는데, 상장일 155~226억원의 시가총액으로 시작해 각사 변경 상장일 기준 418~2,034억원,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전일 기준 1,921~2,206억원 기록해 코넥스 상장일 기준 현재까지 랩지노믹스 12.7배, 미디어나 10.7배, 하이로닉 9.8배 시가총액이 급증했다.

시장 이전 상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중소기업이 발전 초기 단계에서 본격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비, 공장 투자비 등의 조달과 벤처캐피탈 등 기업 초기 전문투자자의 투자활성화 등이 선순환되어 작용된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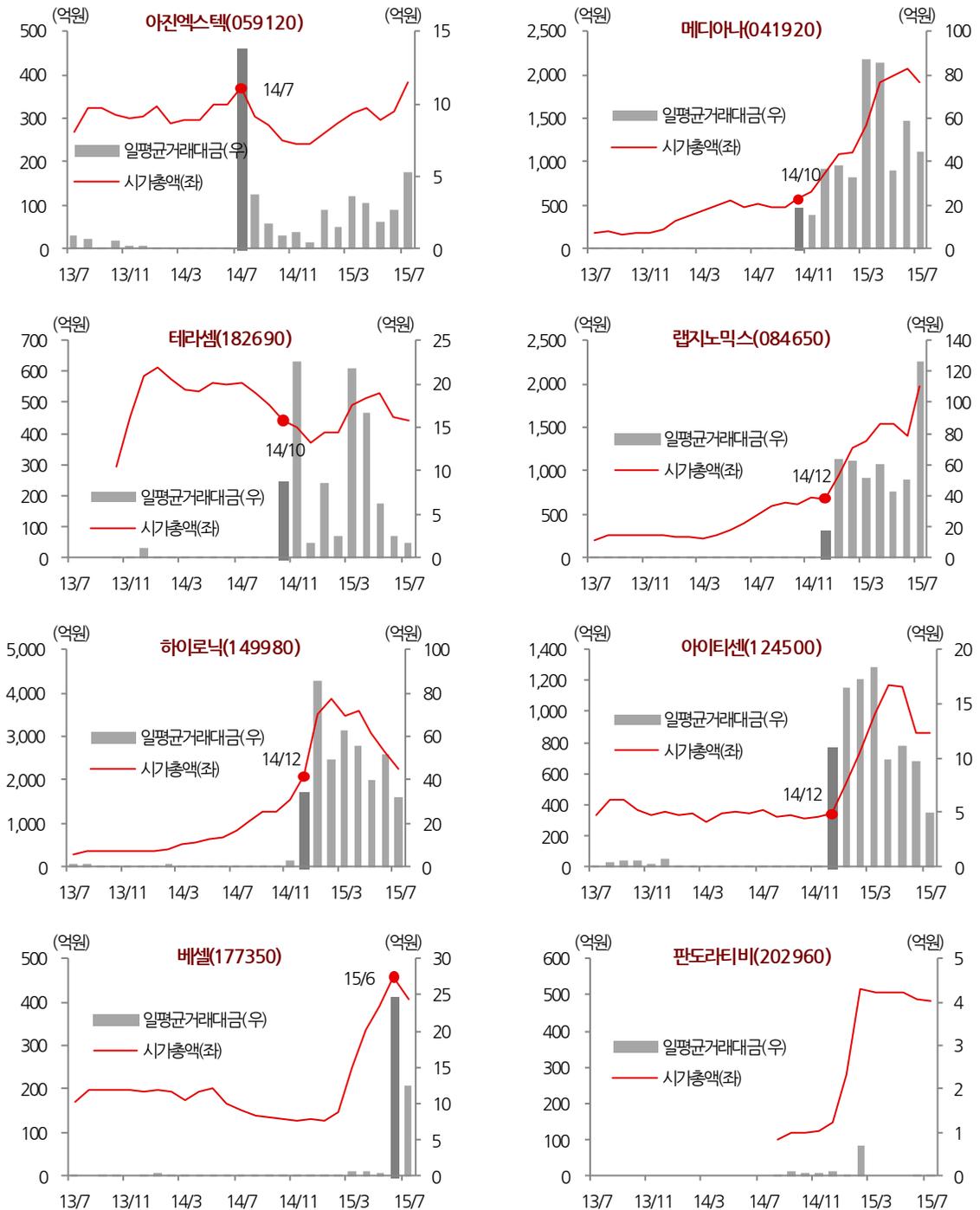
또한 코스닥시장 이전 이후에는 코넥스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래 증가로 주식의 유동성에 대한 할증(premium)이 적용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2014년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현재의 코넥스시장 기업들에게 기대감으로 작용되면서 코넥스시장이 기업의 미래 가치 반영이라는 시장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최근 코스피/코스닥 IPO(기업공개)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공모주식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공모주식의 경쟁률이 오름에 따라 기존의 IPO펀드의 운용 자금이 원하는 물량의 지분을 공모시장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스펙 합병이 확대되며, 신규 상장 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는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투자 대안으로 코넥스 기업 주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6개월~1년내 코스닥 변경 상장 예정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금액이 적어도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 물량과 비교 한다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코넥스 기업 공개를 통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알리고, 전환우선주,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초기 성장 자금을 확보하여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성장 모델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Fig. 17: 코넥스→코스닥 변경 상장 기업의 변경 상장 전후 시가총액과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출처: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 2014년~2015년 변경 상장일 순

3. 코넥스 상장기업 현황

코넥스 상장기업 현황

코넥스시장에는 2015년 7월 기준 84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1위 현성바이탈의 시가총액은 5,290억원, 84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506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총 17개 기업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3월 '세제혁명'으로 유명한 생활용품 전문기업 비엔디생활건강(215050)을 시작으로 4월 건강기능식품 생산 전문 기업 현성바이탈(204990), 피부레이저치료기의 원텍(216280) 등과 6월에는 나노바이오시스(214610), 지티스웰니스(219750), 씨앗(103660)과 코스닥 상장기업 웰메이드에당(036260)의 자회사이자 걸그룹 걸스데이의 소속사로 유명한 드림티엔터테인먼트(220110)가 상장되었고, 6월 29일 바이오코아(216400), 핸디소프트(220180), 유투바이오(221800) 등 6월에만 7개 기업이 신규상장되었다. 7월에는 네추럴FNP(086220), 구름컴퍼니(223220), 솔트웍스(222520) 등 신규상장이 이어졌다.

코넥스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살펴보면<Fig 18.>, 엔지켐생명과학, 아이진, 바이오리더스, 툴젠 등 신약개발 전문 기업들과 엘엔케이바이오, 원텍, 엠지메드, 바이오코아 등 진단/의료기기 및 광범위한 의미로 건강기능식품 생산 기업인 현성바이탈까지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9개 기업이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들로 채워져 있다. 이는 초기의 중소 헬스케어 기업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 초기 연구/개발 비용이 집중되는데, 기존의 코스닥 기술성평가 상장을 준비하는 전단계로 코넥스시장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성 있는 초기 중소기업의 상장을 통한 기업의 성장 자금 확보라는 코넥스시장의 주요 역할도 초기 헬스케어 기업들과 호흡이 맞은 결과라고 평가된다.

Fig. 18: 코넥스 상장기업 목록1(시가총액 순)

순번	회사명(코드)	코넥스상장 (YY/MM)	주가 (원)	시가총액 (억원)	주가상승률 (%,1M/3M)	일평균 거래대금 (억원,1M)	2014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1	현성바이탈(204990)	'15/4	26,450	5,290	+94.5/+117.7	0.0	225	74	58
2	엔지켄생명과학(183490)	'13/9	67,000	4,231	-9.3/+42.9	3.8	156	-15	-22
3	엘앤케이바이오(156100)	'13/7	29,700	2,483	+21.2/+41.8	1.4	134	20	12
4	아이진(185490)	'13/11	22,900	1,940	+21.2/+68.4	7.1	2	-31	-29
5	바이오리더스(142760)	'14/11	17,850	1,922	+101.0/+144.9	5.0	12	-34	-14
6	원텍(216280)	'15/4	40,950	1,634	+37.7/+0.0	0.6	175	-2	-18
7	엠지메드(180400)	'14/12	93,000	1,594	+82.4/+107.4	0.3	47	4	2
8	톨젠(199800)	'14/6	30,000	1,506	+7.1/+62.2	1.5	15	2	1
9	엑시콘(092870)	'14/12	16,900	1,153	+0.0/+34.7	1.3	380	55	60
10	바이오코아(216400)	'15/6	16,450	1,122	+0.0/+0.0	2.6	170	12	7
11	나노바이오시스(214610)	'15/6	33,950	1,095	+42.7/+0.0	0.4	11	-26	-49
12	피노텍(150440)	'14/12	13,450	1,027	+1.9/+0.4	1.3	27	-15	-24
13	에이비온(203400)	'14/7	12,650	1,027	+5.4/+15.0	0.7	25	-47	-53
14	듀켄바이오(176750)	'14/12	19,500	975	+8.3/+5.4	3.1	173	14	2
15	매직마이크로(127160)	'13/12	14,950	602	+57.4/+66.1	0.0	533	43	53
16	리드(197210)	'14/9	21,200	597	+149.7/+357.9	0.0	405	17	19
17	구름컴퍼니(223220)	'15/7	14,700	500	+0.0/+0.0	0.0	239	16	14
18	아시아중모(154030)	'14/7	7,990	486	+35.4/+77.8	0.3	133	8	5
19	유니온커뮤니티(203450)	'14/7	4,000	465	-2.4/+133.2	0.1	320	6	6
20	판도라티비(202960)	'14/8	4,300	464	-7.6/-8.5	0.0	116	17	12
21	대동고려삼(178600)	'13/12	10,450	460	+226.6/+189.1	0.0	260	22	10
22	대주이엔티(114920)	'13/7	13,200	458	+62.4/+69.2	0.1	1,447	52	33
23	데이터스트림즈(199150)	'14/6	11,000	442	+18.9/+120.0	0.0	183	4	3
24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	'13/12	9,250	442	+45.7/+115.1	0.0	101	24	21
25	핸디소프트(220180)	'15/6	11,800	436	+0.0/+0.0	0.0	442	-29	-57
26	엘피케이(183350)	'13/10	11,600	432	+0.0/+11.5	0.0	153	14	11
27	유투바이오(221800)	'15/6	27,600	399	+0.0/+0.0	0.2	110	7	3
28	네추럴FNP(086220)	'15/7	5,400	399	+0.0/+0.0	0.7	381	20	-3
29	지티자웰니스(219750)	'15/6	24,850	387	+17.5/+0.0	0.0	66	-2	0
30	이김프로덕션(210120)	'14/12	22,000	374	+0.0/+10.0	0.0	357	29	20
31	이엔드디(101360)	'13/7	6,000	368	-2.6/+0.3	0.0	179	2	2
32	비엔디생활건강(215050)	'15/3	17,100	356	-12.3/+7.6	1.5	146	18	13
33	래몽래인(200350)	'14/12	27,000	339	+17.9/+42.1	0.6	148	19	15
34	다린(204690)	'14/9	4,200	333	+4.7/+5.0	0.0	400	38	33
35	칩스앤미디어(094360)	'13/10	12,200	333	+3.0/+22.1	1.6	108	20	25
36	씨아이에스(144630)	'14/4	9,200	307	-6.1/+7.0	0.0	116	-12	-6
37	유디피(091270)	'14/12	3,910	287	+41.2/+18.1	0.1	295	11	29
38	에프앤가이드(064850)	'13/7	3,650	254	+78.9/+71.0	0.1	90	10	7
39	디지캡(197140)	'14/5	7,880	249	-5.4/+19.4	0.0	97	8	5
40	드림티엔터테인먼트(220110)	'15/6	4,480	246	+6.7/+0.0	1.1	66	21	19
41	태양기계(116100)	'13/7	3,815	238	+3.1/+0.7	0.0	348	2	-5
42	틸론(217880)	'15/5	13,700	219	+2.2/+0.0	0.0	55	3	2

출처: BNK투자증권, Quantwise / 현재가 기준일 2015년 7월 24일

Fig. 19: 코넥스 상장기업 목록2(시가총액 순)

순번	회사명(코드)	코넥스상장 (YY/MM)	주가 (원)	시가총액 (억원)	주가상승률 (%,1M/3M)	일평균 거래대금 (억원,1M)	2014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43	에스엔피제네틱스(086460)	'13/7	11,800	215	+4.4/+100.0	0.3	9	-1	14
44	관악산업(076340)	'15/5	4,200	205	+37.7/+0.0	0.3	900	22	28
45	청광중건(140290)	'13/12	1,930	204	-9.6/+7.2	0.0	730	34	22
46	에스티(122640)	'14/12	7,220	178	-31.6/+20.3	0.0	404	24	13
47	그린플러스(186230)	'13/12	6,720	158	+14.9/+16.9	0.0	378	16	4
48	비나텍(126340)	'13/7	6,740	154	+117.4/+124.7	0.0	220	8	4
49	에스에이티이엔지(158300)	'13/7	4,750	152	-16.7/+35.7	0.0	240	8	14
50	세화피앤씨(085980)	'13/9	3,990	148	-10.3/-2.7	0.0	201	5	5
51	금오하이텍(165270)	'13/12	3,050	139	+0.0/-9.0	0.0	369	20	5
52	디파엔케이(189700)	'14/6	1,905	139	-24.9/-24.9	0.0	125	18	13
53	비엔에스미디어(156170)	'13/7	4,305	138	+0.0/+0.0	0.0	141	4	1
54	큐엠씨(136660)	'14/7	15,400	137	+16.7/+38.1	0.0	137	-22	-41
55	닉스테크(063840)	'13/11	2,415	135	-10.6/-16.7	0.0	151	14	10
56	옵토팩(123010)	'14/10	4,200	133	-9.7/-2.8	0.3	339	28	16
57	한주금속(198940)	'14/8	1,800	130	-2.7/+2.9	0.0	1,225	-27	-42
58	코셋(189350)	'13/12	3,120	125	-28.6/+20.0	0.0	82	-39	-28
59	소프트캠프(210610)	'14/12	7,410	121	+46.4/-6.1	0.0	158	6	6
60	한중엔시에스(107640)	'13/12	3,225	119	+0.0/-4.3	0.0	582	-12	-2
61	유비온(084440)	'14/1	3,960	119	-4.1/+1.8	0.1	220	7	3
62	수프로(185190)	'13/10	3,500	116	+29.2/+112.1	0.0	168	5	1
63	엘로페이(179720)	'13/7	1,025	115	+11.4/+13.9	0.0	3	-30	-29
64	나이코(192240)	'14/2	6,640	113	+4.6/+5.7	0.0	268	10	2
65	피엠디아카데미(144740)	'13/7	6,100	106	-10.2/-15.6	0.1	301	18	3
66	센테크(217320)	'15/4	10,000	105	+0.0/+0.0	0.0	179	7	6
67	세신버팔로(110660)	'14/12	1,700	102	+2.4/-8.1	0.0	253	23	8
68	솔트웍스(222520)	'15/7	4,005	99	+0.0/+0.0	0.0	68	3	1
69	유니포인트(121060)	'14/10	16,000	96	-4.2/-13.3	0.0	670	11	8
70	위월드(140660)	'13/12	3,745	93	-6.1/+30.3	0.0	93	-5	-13
71	에듀케이션파트너(208890)	'14/12	4,400	88	+41.3/+116.8	0.0	124	7	5
72	세종머티리얼즈(135270)	'14/12	2,285	83	-19.8/-21.2	0.0	641	18	-1
73	이엘피(063760)	'15/4	2,620	83	-18.1/+0.0	0.0	102	12	11
74	아이케이세미콘(149010)	'14/11	2,510	78	+3.7/+32.1	0.0	151	10	6
75	씨앗(103660)	'15/6	4,280	77	+112.9/+0.0	0.2	178	11	2
76	테라텍(151750)	'13/7	2,475	73	-20.2/+23.4	0.0	157	1	1
77	씨티네트웍스(189540)	'13/12	3,270	72	+3.8/+35.7	0.0	111	-19	-26
78	SY이노베이션(194860)	'14/4	2,690	66	+0.0/-2.7	0.0	40	2	3
79	하나일렉콤(103650)	'13/12	1,950	59	-5.8/+9.9	0.0	140	15	5
80	씨이랩(189330)	'13/12	2,065	41	-42.6/-41.0	0.0	11	-1	-1
81	프렉코(082220)	'14/4	1,015	41	+0.5/+0.5	0.0	315	-78	-92
82	데카시스템(183410)	'13/11	1,085	39	+21.6/-12.2	0.0	161	4	-7
83	이푸른(185280)	'13/11	1,670	36	+39.2/+5.7	0.0	392	8	22
84	피엠에스(179440)	'14/2	740	23	-40.6/-46.4	0.0	406	7	3

출처: BNK투자증권, Quantwise / 현재가 기준일 2015년 7월 24일

4. 코넥스 상장기업 관심주와 추천주

코넥스 관심주: 엔지켐생명과학, 엘앤케이바이오, 비엔디생활건강 등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84개 중 관심기업으로 제시할 만한 기업들은 역시 코스닥시장으로 변경 상장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시작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기업별로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전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엑시콘(092870), 판도라티비(202960), 칩스앤미디어(094360), 옵토팩(123010) 이외에도 코넥스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엘앤케이바이오(156100), 엠지메드(180400), 툴젠(199800) 및 비엔디생활건강(215050), 예스티(122640) 등이 2015~2016년 졸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독보적인 기술력 또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코넥스시장에서 1년 이상 힘을 비축해 2016년 이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유망 기업들로 현성바이탈(204990), 피노텍(150440), 에이비온(203400), 아시아종묘(154030), 대주이엔티(114920), 드림티엔터테인먼트(220110), 태양기계(116100), 그린플러스(186230), 디피엔케이(189700), 닉스테크(063840) 등을 코넥스 상장기업 유망주로 선정하고, 엔지켐생명과학(천연물 유래 호중구/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연구/개발), 엘앤케이바이오(척추 임플란트 개발 및 생산/판매), 비엔디생활건강(세제 등 생활용품)을 코넥스시장 최선후주(Top-Picks)로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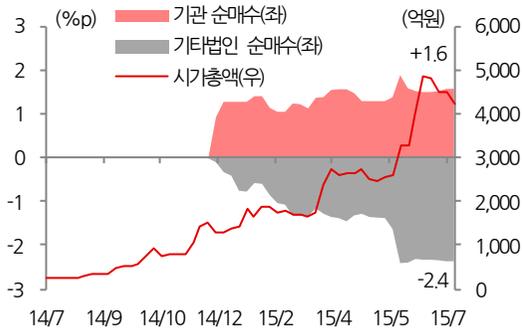
Fig. 20: 코넥스 상장기업 추천주

(단위: 억원,%,배)

회사명(코드) / 주력사업 및 제품	현재주가 시가총액 52주최고/최저가 주가상승률(1/3/6개월)		2012	2013	2014	2015F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호중구/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약품	67,000원 4,231억원 78,500/6,000원 (-9.3/+42.9/+106.2)	매출액	201	202	156	237
		매출증가율	50.6	0.5	-23.1	52.1
		영업이익	14	-2	-15	48
		영업이익률	6.9	-1.2	-9.4	20.3
		PER	-	-	-	92.0
엘앤케이바이오 (156100) 정형외과용 척추임플란트	29,700원 2,483억원 33,400/8,003원 (+21.2/+41.8/+117.6)	매출액	147	174	134	320
		매출증가율	19.5	18.3	-23.3	139.5
		영업이익	40	53	20	80
		영업이익률	27.4	30.4	15.3	25.1
		PER	-	13.0	71.5	40.0
비엔디생활건강 (215050) 친환경 세탁세제 (세제혁명)	17,100원 356억원 25,800/9,000원 (-12.3/+7.6/-)	매출액	-	168	146	250
		매출증가율	-	-	-13.1	70.5
		영업이익	-	23	18	30
		영업이익률	-	13.8	12.0	12.1
		PER	-	-	-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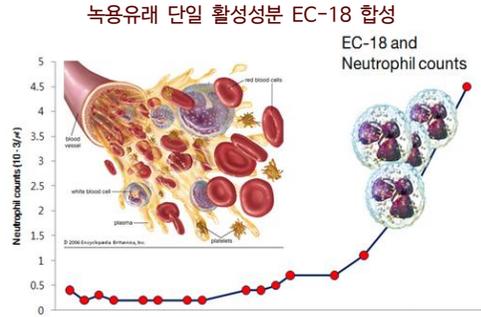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BNK투자증권 추정 / 주: 현재가 기준일 2015년 7월 24일

Fig. 21: 엔지켐생명과학 시총, 기관/기타법인 순매수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Quantiwise, BNK투자증권

Fig. 22: 엔지켐생명과학 개발 신약 EC-18



EC-18: 1-Palmitoyl-2-Linoleoyl-3-Acetyl-rac-Glycerol(PLAG)

출처: 엔지켐생명과학, BNK투자증권

Fig. 23: 엘앤케이바이오 시총, 기관/기타법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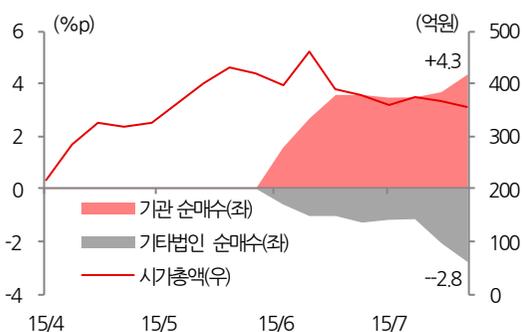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Quantiwise, BNK투자증권

Fig. 24: 엘앤케이바이오 척추 임플란트 주요 제품



출처: 엘앤케이바이오, BNK투자증권

Fig. 25: 비엔디생활건강 시총, 기관/기타법인 순매수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Quantiwise, BNK투자증권

Fig. 26: 비엔디생활건강 주요 제품



출처: 비엔디생활건강, BNK투자증권

참고 1: 코넥스시장의 이해(한국거래소)



본 조사분석자료의 일부 내용은 한국거래소(KRX)에서 발간한 ‘2015 코넥스시장의 이해’에서 ‘1장 코넥스시장 개요’ 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5 코넥스시장의 이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코넥스시장 홈페이지(konex.krx.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 사용된 코넥스 상장기업들의 주가 등 자료는 ‘KRX자본시장통계포털’(stats.krx.co.kr)의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한국거래소(코넥스), BNK투자증권

참고 2: 코넥스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BNK투자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2015년 3월 30일과 6월 29일 기발간한 ‘코넥스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과 ‘코넥스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무삭제 확장판]’의 내용에 최근 코넥스 시장 현황과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석을 추가하여 발간하는 중복 자료입니다. 일부의 내용은 기발간한 자료와 중복 게재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기발간된 리포트는 BNK투자증권 홈페이지(www.bnkfn.co.kr)에서 열람 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BNK투자증권

관련 기업 레포트

현성바이탈(204990)	24
엔지켐생명과학(183490)	26
엘앤케이바이오(156100)	28
엠지메드(180400)	30
피노텍(150440)	32
에이비온(203400)	34
아시아종묘(154030)	36
대주이엔티(114920)	38
비엔디생활건강(215050)	40
드림티엔터테인먼트 (220110)	42
태양기계(116100)	44
예스티(122640)	46
그린플러스(186230)	48
디피앤케이(189700)	50
닉스테크(063840)	52

현성바이탈 (20499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건강기능식품의 강자가 코넥스시장에 등장

천연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발/생산 전문 기업!

천연비타민 개발 및 생산 등 건강기능식품 생산 전문 기업. '15년 4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상장 3개월만에 전일 시가총액 5,290억원을 기록해 상장일 대비 7.6배 급증하며,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1위 기록 중.

고부가 건기식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장점인데, '14년은 매출액 225억원(+18.0% YoY), 영업이익 74억원(+160.3%) 등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었고, 판관비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가(14.9%→ 32.9%)로 수익성이 크게 증대됨. '15년은 기존 제품군의 안정적인 실적 위에 신제품군의 매출 기여가 더해져 매출액 270억원(+19.8% YoY), 영업이익 85억원(+14.9%)이 예상된다. '15년 1분기 매출액 56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

환/액상 형태의 균형생식 제품군과 화장품, 수소수기 등 신사업군

주력 제품은 균형생식환(생식), 나타시오(가르시니아캄보지아) 등 환 제품군과 황찬고(다류), 헛개페파스(헛개나무) 등 액상 제품군 등으로 '14년 각각 매출액 비중 52%, 28%를 차지함. '15년은 프리미엄 그라비올라, 천연화장품(아미인), 수소수기(지바쿠아) 등 신제품 및 신사업군의 매출 기여 예상.

낮은 유통 주식수, 높은 단일 거래처 매출 비중

동사 주식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주주 신지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83%에 이르고, 1% 이상 소액주주 12%까지 감안하면, 실제 유통 주식은 5%대에 불과함. 또한 '14년 기준 90%이상의 매출이 네트워크 판매사 세흥허브로 집중되어 있어 낮은 유통 주식수와 높은 단일 거래처 매출 비중은 '16년 중 코스닥 변경 상장 계획하고 있는 동사에게는 해결해야할 숙제임.

Fig. 27: 현성바이탈 재무제표 요약[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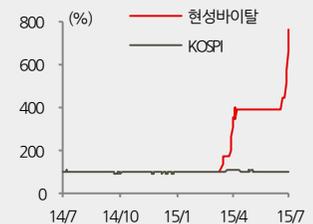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149	169	191	225	270
영업이익	-7	8	28	74	85
세전이익	-5	7	24	74	84
순이익	-5	5	15	58	66
EPS (원)	-115	116	131	334	328
증감률 (%)	적전	흑전	13.3	154.4	-1.8
PER (배)	-	-	-	-	80.8
PBR	-	-	-	-	30.3
EV/EBITDA	-	-	-	-	55.6
ROE (%)	-8.6	8.0	17.2	42.5	37.6
배당수익률	-	-	-	-	0.0

출처: 현성바이탈, BNK투자증권 추정 / 주: K-GAAP 기준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26,45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5,290억원
52주최고가	26,450원
52주최저가	3,485원
상장주식수	2,000만주
자본금/액면가	100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0천주
60일평균거래대금	0.5백만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 -
주요주주및지분율	
신지운 등	83.0%

주가동향



BNK스몰캡

최종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이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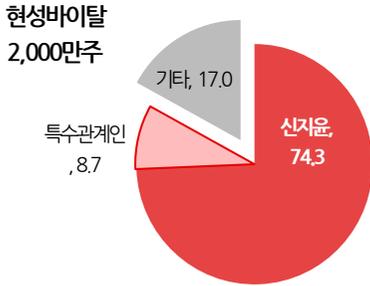
ana0128@bnkfn.co.kr
(02)3215-7560

박세진

sjpark@bnkfn.co.kr
(02)3215-1527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28: 현성바이탈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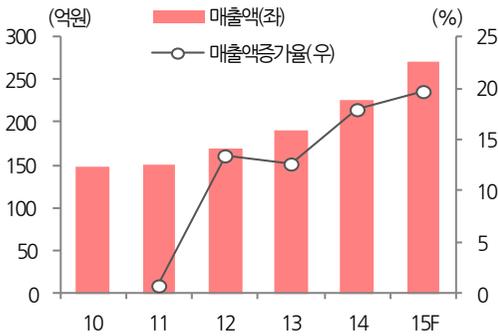
출처: 현성바이탈, BNK투자증권

Fig. 29: 현성바이탈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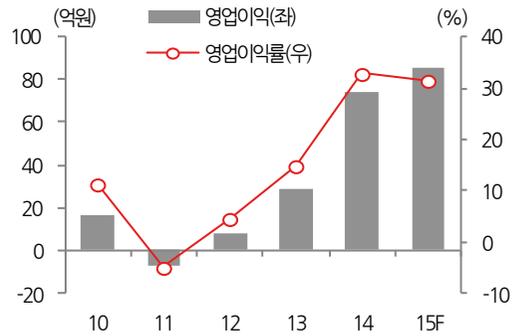
출처: 현성바이탈, BNK투자증권

Fig. 30: 현성바이탈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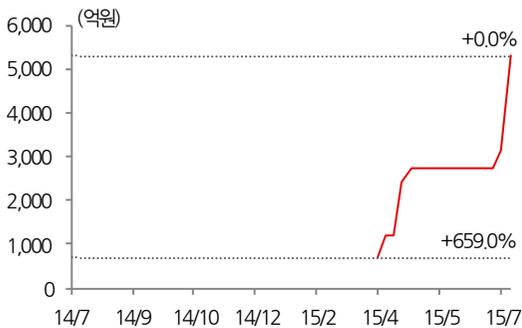
출처: 현성바이탈, BNK투자증권 / K-GAAP 기준

Fig. 31: 현성바이탈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출처: 현성바이탈, BNK투자증권 / K-GAAP 기준

Fig. 32: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33: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코넥스시장 시가총액 1등 신약개발 기업

신약개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약품으로 균형 잡힌 제약 기업

천연물 유래 호중구/혈소판 감소증 치료제(EC-18) 및 건강기능식품(톡피드), 원료의약품(API) 개발/생산 전문 제약 기업. '13년 9월 코넥스시장 상장 이후 시가총액이 전일 4,231억원까지 15.8배 급증하며,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 위 기록 중.

'14년은 매출액 156억원(-23.1% YoY), 영업이익 -15억원(적자확대) 등 실적 적어 감소했는데, 주수익원인 원료의약품 매출 감소와 주요 신약개발 과제인 EC-18의 국내외 임상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의 결과임. '15년 본격 진행되는 국내와 미국 임상결과에 따라 '16년 중 다국적 제약사 기술 수출 계약과 코스닥시장 변경 상장 계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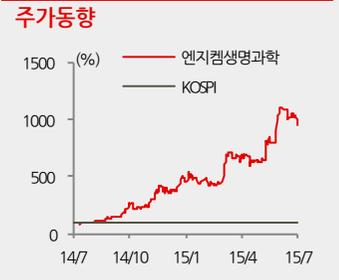
천연물 유래 호중구/혈소판 감소증 치료 신약개발 기업

EC-18: 천연물(녹용)에서 유래한 물질 PLAG를 합성하여 항암제 치료시에 유발되는 호중구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에 대한 치료보조제로 개발 중으로 '14년 3~9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췌장암 환자의 항암치료 중 백혈구(WBC)와 혈소판(PLT) 수치 조절에 대한 성공적인 예비(pilot) 임상 경과 획득(호중구 50% 미만 감소 9.37%; 치료군 62.5%). 현재 국내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으로 '15년 아산병원 임상2상 계획. 미국은 '15년 5월말 임상1상 IND 승인을 받았고, 내년에는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임상2상 진입 목표.

'14년 1월 EC-18 유래 건강기능식품 톡피드 출시. 합성 PLAG 물질에 기반한 개별인정형(면역 조절) 건강기능식품. 캐나다 등 해외 등록 및 원료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 진행 중.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67,00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4,231억원
52주최고가	78,500원
52주최저가	6,000원
상장주식수	631만주
자본금/액면가	32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1.2만주
60일평균거래대금	6.2억원
외국인지분율	1.3%
자기주식수	-/-
주요주주및지분율	
손기영 등	27.8%



BNK스몰캡

최종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이승은

ana0128@bnkfn.co.kr
(02)3215-7560

박세진

sjpark@bnkfn.co.kr
(02)3215-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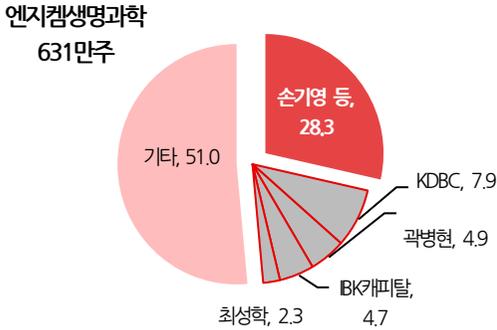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34: 엔지켐생명과학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134	201	202	156	237
영업이익	22	14	-2	-15	48
세전이익	20	12	-17	-22	46
순이익	20	12	-17	-22	46
EPS (원)	554	323	-476	-542	729
증감률 (%)	426.5	-41.6	적전	적확	흑전
PER (배)	-	-	-	-	91.9
PBR	-	-	1.2	8.3	28.5
EV/EBITDA	-	-	25.8	-680.5	70.3
ROE (%)	24.5	7.6	-9.5	-14.0	31.0
배당수익률	-	-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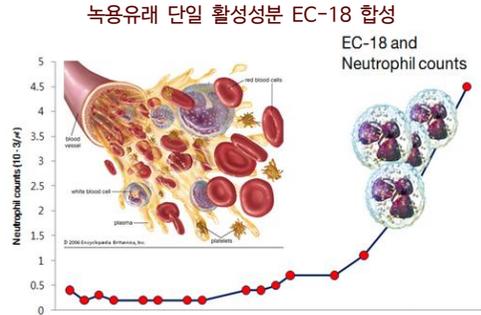
출처: 엔지켐생명과학, BNK투자증권 추정

Fig. 35: 엔지켐생명과학 주요주주내역 (단위: %)



출처: 엔지켐생명과학,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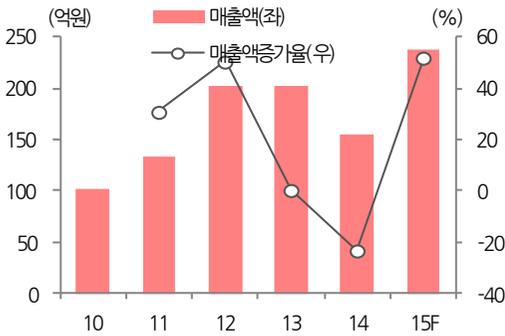
Fig. 36: 엔지켐생명과학 개발 신약 EC-18



EC-18: 1-Palmitoyl-2-Linoleoyl-3-Acetyl-rac-Glycerol(P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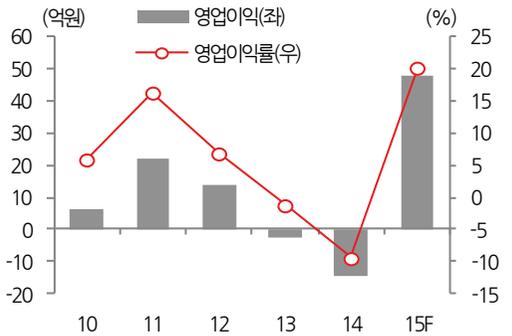
출처: 엔지켐생명과학, BNK투자증권

Fig. 37: 엔지켐생명과학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출처: 엔지켐생명과학,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38: 엔지켐생명과학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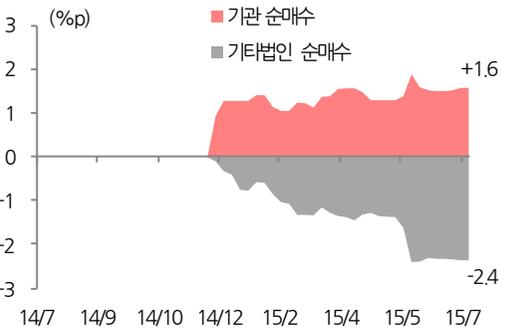
출처: 엔지켐생명과학,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39: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40: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엘앤케이바이오 (15610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정형외과용 척추임플란트 전문 의료기기 강소기업

코넥스 의료기기 기업의 성공 신화를 잇는다!

척추 임플란트의 개발 및 생산/판매 등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13년 7월 코넥스 시장 개설과 함께 상장되어 전일 시가총액 2,483억원까지 상장일 대비 7.4배 증가함.

'14년은 [별도]매출액 134억원(-23.3% YoY), 영업이익 20억원(-64.9% YoY) 등 실적이 감소했는데, '13년 미국 판매 법인의 초도 물량 공급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조정으로 판단함. '14년 [연결]매출액 202억원(+16.2% YoY), 영업이익 21억원(-63.1% YoY)을 기록했는데, '15년 국내 매출처 확대 및 미국 법인의 판매 급성장에 힘입어 [연결]매출액 350억원 이상이 기대됨. '15년 1분기 매출액 80억원, 영업이익 27억원, 순이익 26억원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실적 성장 시현. '16년 상반기 코스닥 변경 상장 계획 중.

척추 상단부터 하단까지 정형외과 척추 관련 폭넓은 제품 구성

동사의 척추 임플란트는 퇴행성 척추 질환, 척추골절, 척추측만증, 목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 치료의 표준 수술 방법인 척추유합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임. 척추 상단(경추; Cervical)부터 하단(흉요추; Thoracho-Lumbar)까지 퇴행성 불안정, 척추협착증, 척추 종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척추굽음증 등 정형외과 척추 수술/시술 관련 폭넓은 제품 구성이 강점.

미국 판매 법인 자회사 이지스 스파인(AEGIS SPINE INC.)은 '13년~'14년 매출이 본격화되며, 동사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음.

'13년 매출액 52억원, 순이익 4억원/ '14년 매출액 124억원, 순이익 7억원

Fig. 41: 엘앤케이바이오 별도재무제표 요약[연간]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123	147	174	134	320
영업이익	32	41	58	20	80
세전이익	32	36	-23	13	73
순이익	30	32	-17	12	62
EPS (원)	556	539	-278	187	727
증감률 (%)	-	-2.9	적전	흑전	288.3
PER (배)	-	-	-	70.5	40.9
PBR	-	-	3.0	6.6	12.9
EV/EBITDA	0.5	1.2	9.4	30.7	26.7
ROE (%)	39.9	35.7	-17.0	10.7	38.4
배당수익률	-	-	0.0	0.0	0.0

출처: 엘앤케이바이오, BNK투자증권 / 주: 2015년 5월 21일 발표 사업보고서 기준

투자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29,70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2,483억원
52주최고가	33,400원
52주최저가	8,600원
상장주식수	836만주
자본금/액면가	42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6만주
60일평균거래대금	1.3억원
외국인지분율	5.0%
자기주식수	- / -
주요주주및지분율	
강국진 등	28.7%

주가동향



BNK스몰캡

최종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이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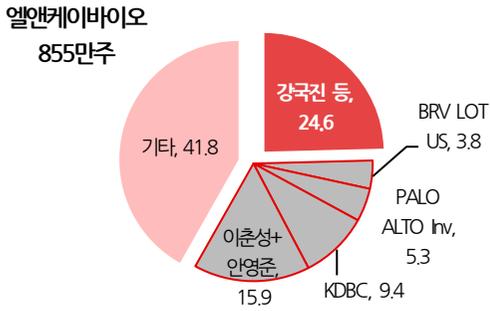
ana0128@bnkfn.co.kr
(02)3215-7560

박세진

sjpark@bnkfn.co.kr
(02)3215-1527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42: 엘앤케이바이오 주요주주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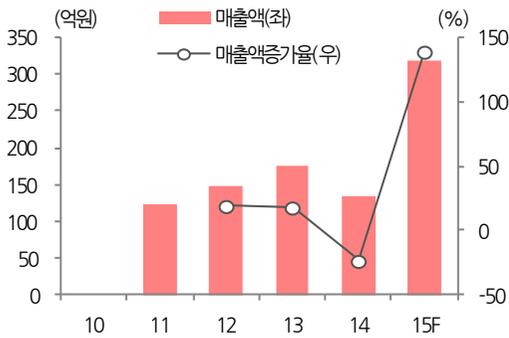
주: 전환상환우선주(BRV LOT US) 포함.
출처: 엘앤케이바이오, BNK투자증권

Fig. 43: 엘앤케이바이오 척추 임플란트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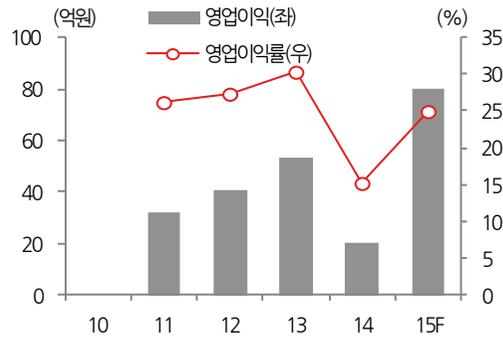
출처: 엘앤케이바이오, BNK투자증권

Fig. 44: 엘앤케이바이오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출처: 엘앤케이바이오, BNK투자증권 / K-IFRS 별도 기준

Fig. 45: 엘앤케이바이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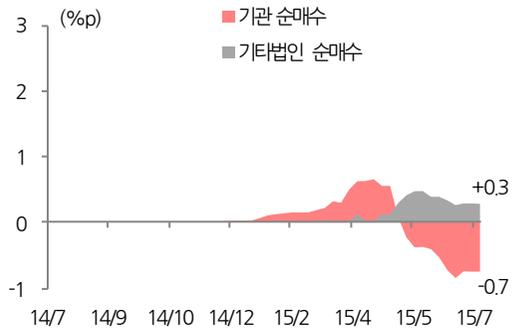
출처: 엘앤케이바이오, BNK투자증권 / K-IFRS 별도 기준

Fig. 46: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47: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엠지메드 (18040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태아의 수정부터 탄생까지 염색체 진단기업

분자진단 전문 기업

감염성 질환, 염색체 이상, 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고유한 표식(marker)을 분자생물학적으로 탐지, 질병의 조기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분자진단 전문 기업.

태아 수정부터 탄생까지 유전체 이상 진단서비스 골고루 갖춰

- '15년 예상 [개별]순이익 기준 매출액 54억원(+14.7% YoY), 영업이익 7억원(+79.6% YoY) 예상.
- 분자진단: 혈액 및 뇨와 같이 인체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핵산(DNA/RNA)를 추출하여 병의 원인 및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
- PGS: 착상전 수정란 검사를 통해 수정란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서비스. 동사의 이익률 높은 제품 중 하나임.
- 엠지테스트(MG Test):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기술을 이용한 산전 양수검사. 기존 핵형검사에 비해 10일 가량 빠르게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음. 양수검사는 기형아 출생률이 높아지는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에겐 필수검사. 최근 고령 산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지스캐닝(G-scanning): 국내 유일의 신생아 염색체 진단 제품. 출생 후 한번의 검사로 40여종의 유전병을 진단하는 산후 신생아 검사 제품. 유전성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한 선제적 치료로 신규 시장을 형성하여 매출액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Fig. 48: 엠지메드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34	39	47	54
영업이익	3	0	4	7
세전이익	2	-2	2	7
순이익	2	-3	2	7
EPS (원)	189	-215	158	423
증감률 (%)		적전	흑전	167.2
PER (배)	-	-	104.2	219.8
PBR	-	-	3.9	20.2
EV/EBITDA	-	-	40.3	81.7
ROE (%)	27.2	-18.1	4.9	9.6
배당수익률		-	0.0	0.0

출처: 엠지메드, BNK투자증권 / 2012년은 내부결산 재무제표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93,00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1,594억원
52주최고가	95,400원
52주최저가	15,100원
상장주식수	171만주
자본금/액면가	8.6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4천주
60일평균거래대금	0.2억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 -
주요주주및지분율	
마크로젠 등	60.4%

주가동향



BNK스몰캡

이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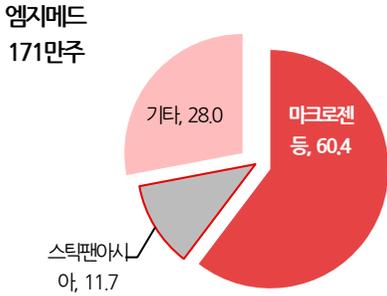
ana0128@bnkfn.co.kr
(02)3215-7560

최종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49: 엠지메드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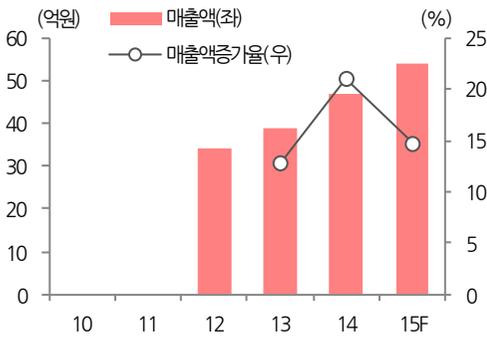
출처: 엠지메드, BNK투자증권

Fig. 50: 엠지메드 주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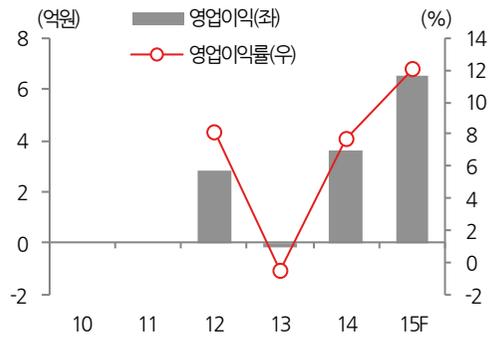
출처: 엠지메드, BNK투자증권

Fig. 51: 엠지메드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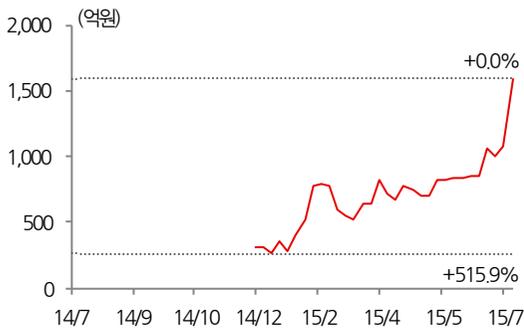
출처: 엠지메드,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52: 엠지메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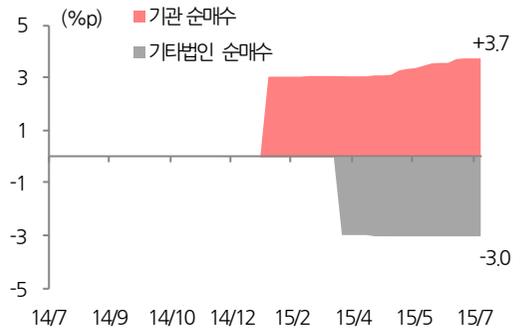
출처: 엠지메드,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53: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54: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클라우드 기반 담보대출 서비스 플랫폼

핀테크 선두주자로 발돋움

플랫폼 기반의 핀테크 서비스 공급 기업. '14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전일 시가총액 1,027억원으로 상장일 대비 2.9배 증가함.

'14년 실적은 매출액 27억원(+371% YoY), 영업손실 14억원(적자지속), 당기 순손실 23억원(적자지속)을 기록함. 이는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개발비, 손상 차손, 충당금 등이 일시에 반영된 결과임. '15년은 안정화된 전자등기시스템과 SI매출 중심으로 성장세 확대 전망. 또한 올해 합병한 아이스트로는 동사의 성장성을 강화시켜 줄 것. '15년 매출액 76억원(+176% YoY), 영업이익의 흑자전환 기대.

금융권 전체 시장 선점 및 영향력 강화 전망

동사는 핀테크 서비스 가운데 법률 관련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음. 전자등기 시스템은 등기업무를 위해 기관을 방문해 작성하는 각종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발급받고 전자문서 형태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수해 이후 결과를 통보하는 형태임.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등의 대다수가 동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건당 수수료를 수취하는 ASP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특성상 시스템 도입 이후 변경 및 교체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 고성장 가능함. 향후 금융기관의 법무관리 솔루션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①담보물 권리확보 비용 부담 고객→ 은행으로 이전, ②등기소 통합으로 오프라인 등기업무시 시간 및 비용 증가, ③인터넷 전용 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에 기인함.

Fig. 55: 피노텍 개별재무제표 요약[년간]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2	12	6	27	76
영업이익	-10	-7	-16	-15	7
세전이익	-10	-9	-17	-24	2
순이익	-10	-9	-17	-24	2
EPS (원)	-366	-217	-311	-360	23
증감률 (%)	-	적축	적확	적확	흑전
PER (배)	-	-	-	-	592.5
PBR	-	-	-	46.2	149.0
EV/EBITDA	-	-	-	-	92.4
ROE (%)	-	-49.7	-118.2	-289.1	28.5
배당수익률	-	-	-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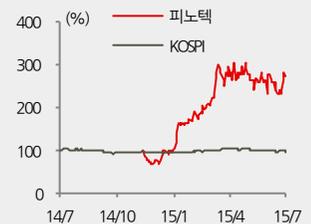
출처: 피노텍, BNK투자증권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13,45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1,027억원
52주최고가	14,950원
52주최저가	3,180원
상장주식수	764만주
자본금/액면가	38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6만주
60일평균거래대금	0.7억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주요주주및지분율	
김우섭 등	39.7%

주가동향



BNK스몰캡

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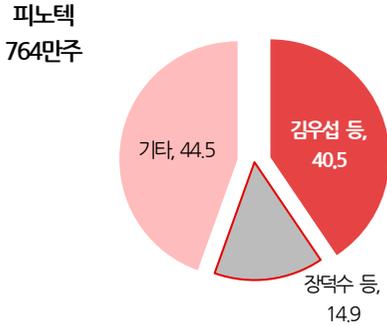
sjpark@bnkfn.co.kr
(02)3215-1527

최중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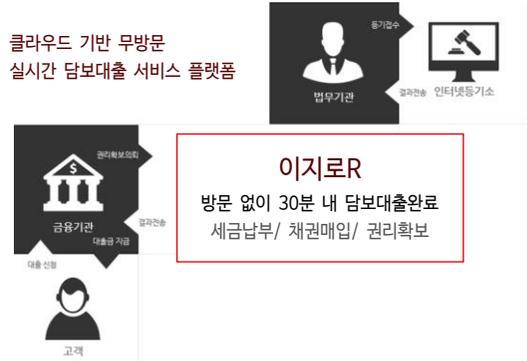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56: 피노텍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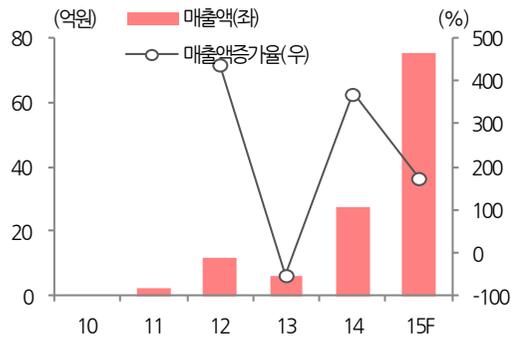
출처: 피노텍, BNK투자증권

Fig. 57: 피노텍 주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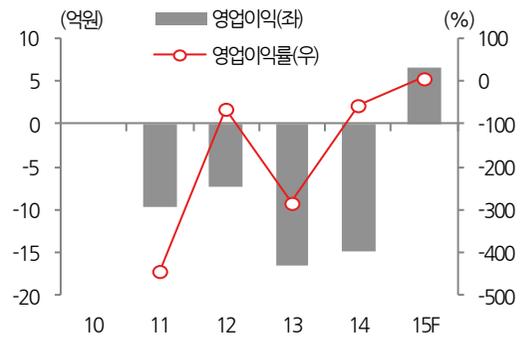
출처: 피노텍, BNK투자증권

Fig. 58: 피노텍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출처: 피노텍,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59: 피노텍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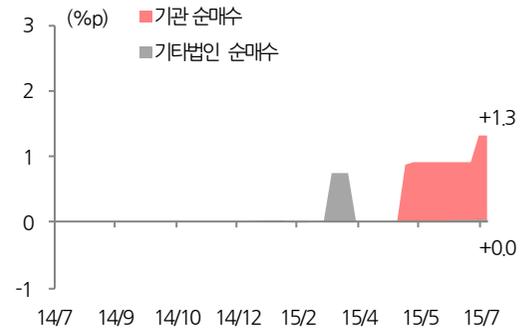
출처: 피노텍,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60: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61: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에이비온 (20340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및 CRO서비스, 연구/진단용 시약 상품 판매 기업. 단백질치료제, 핵산치료제, 항체치료제 분야에서 각각 다발성경화증, 자궁경부암, 난소암 치료제 등을 개발 중으로 비임상/임상시험 준비 중. '14년 7월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전일 시가총액 1,027억원으로 상장일 대비 3.1배 증가함.

'14년 실적은 매출액 25억원(+24.7% YoY), 영업이익 -47억원(적자지속), 당기순이익 -53억원(적자지속)을 기록함.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신약 개발 비용의 반영 기간임. 주요 신약개발 과제들이 비임상시험 단계로 '15년 특별한 기술수출(License-out)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CRO서비스 수익 확대로 적자폭은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글로벌 경쟁력 높은 바이오신약 개발 집중

- 단백질치료제[다발성경화증]: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 제제(카비페론)
인간 인터페론 베타의 아미노산 서열 변화(80번, 25번)를 통해 추가 당화를 유도한 인터페론 베타의 차세대 바이오베타 의약품. '16년 1분기 비임상, '17년초 임상시험 계획.
- 핵산치료제[자궁경부암, 두경부암]: Anti-E6/E7(2-in-1) siRNA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 두 개 유전자(E6, E7)의 발현을 동시에 억제하여 기존의 화학/방사선요법과 병용 치료제로 개발 중. 비임상시험 진행 중.
- 항체치료제[난소암]: Anti-Claudin 3/4 - B12 Antibody
기존 치료제의 낮은 효능 및 부작용 개선이 가능한 표적항암제.

Fig. 62: 에이비온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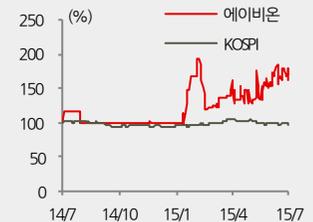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15	11	20	25	31
영업이익	-1	-22	-33	-47	-32
세전이익	-18	-23	-35	-53	-38
순이익	-18	-23	-35	-53	-38
EPS (원)	-4,493	-655	-734	-1,108	-499
증감률 (%)	-	적축	적축	적축	적축
PER (배)	-	-	-	-	-
PBR	-	-	-	8.1	109.4
EV/EBITDA	-	-	-	-	-
ROE (%)	-	-	-174.5	-120.4	-136.7
배당수익률	-	-	-	0.0	0.0

출처: 에이비온, BNK투자증권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12,65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1,027억원
52주최고가	16,500원
52주최저가	7,550원
상장주식수	812만주
자본금/액면가	41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8만주
60일평균거래대금	0.8억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주요주주및지분율	
신영기 등	35.1%

주가동향



BNK스몰캡

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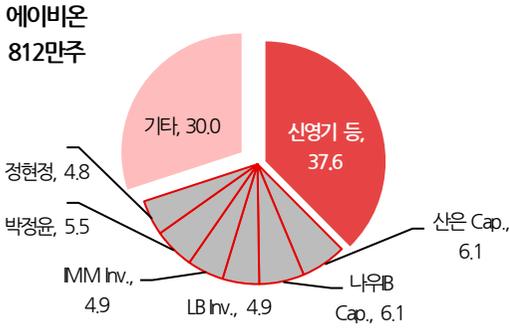
sjpark@bnkfn.co.kr
(02)3215-1527

최중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63: 에이비온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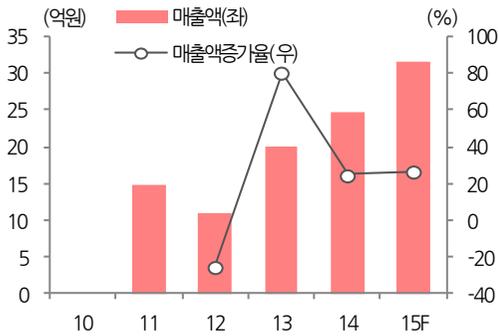
출처: 에이비온, BNK투자증권

Fig. 64: 에이비온 주요 신약개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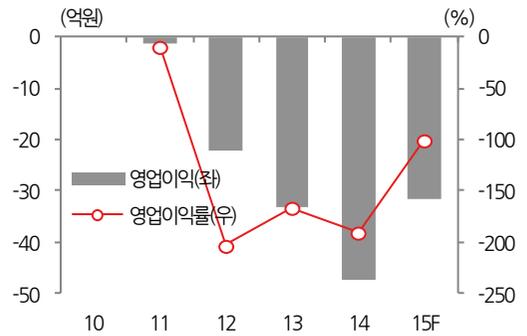
출처: 에이비온, BNK투자증권

Fig. 65: 에이비온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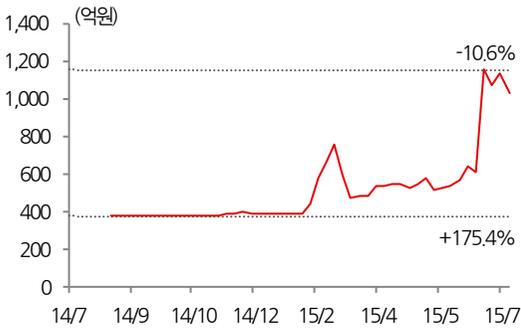
출처: 에이비온, BNK투자증권 / K-IFRS 별도 기준

Fig. 66: 에이비온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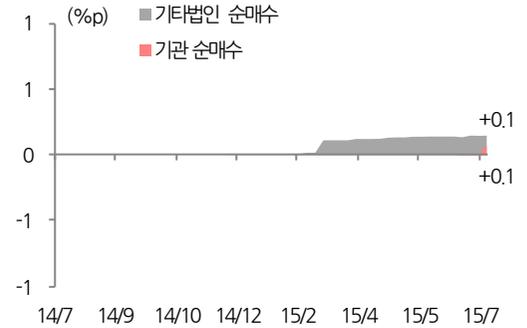
출처: 에이비온, BNK투자증권 / K-IFRS 별도 기준

Fig. 67: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68: 국내 기관과 외국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종자 경쟁력 강화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

대한민국 토종의 씨앗 글로벌 업체로 도약한다!

과채류 중심의 종자를 개발/생산/가공/판매하고 있는 토종 종묘회사로 '04년 설립. '14년 7월 상장되어 전일 시가총액 486억원 기록.

'14년 [별도]매출액 133억원(-22.3% YoY), 영업이익 8.1억원(+163.2% YoY)을 기록함. 결산일 변경(기존 12월에서 현재 9월)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충당금 발생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면서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임. [연결]매출액 133억원(-22.3% YoY), 영업이익 7.9억원(+111.7% YoY)으로 별도실적 대비 매출액은 동일한 반면 영업이익은 소폭 낮았는데 이는 종속기업인 인도법인이 본사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실제 관련 매출은 본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인건비 등의 비용만 연결되기 때문임. '15년 상반기 [별도]매출액 102억원, 영업이익 8억원, 순이익 4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 시현. '17년 상반기 코스닥 변경 상장 계획 중.

국내 종묘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다양성을 확보

신품종 종자 개발은 10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가 소요되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다양한 품종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당사는 약 990종의 채소종자와 기타종자 266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국내종묘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강점. 특히 '11년 이천생명공학육종연구소 개설, '14년 품질관리소 증축 등 연구개발 활동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중. 신품종 개발, 해외 현지 법인 육성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해 성장을 이어갈 전망. '20년 내수 300억원+ 수출 300억원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

Fig. 69: 아시아종묘 연결재무제표 요약[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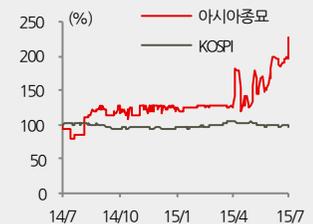
	2011/12	2012/12	2013/12	2014/9	2015/9F
매출액 (억원)	145	141	171	133	200
영업이익	32	-1	4	8	14
세전이익	28	-5	-5	1	6
순이익	30	-2	-3	5	5
EPS (원)	498	-26	-43	80	82
증감률 (%)	-	적전	적확	흑전	2.0
PER (배)	-	-	-	53.5	97.4
PBR	-	-	-	2.7	4.1
EV/EBITDA	-	-	12.5	28.7	26.1
ROE (%)	61.5	-1.6	-2.7	5.1	4.8
배당수익률	-	-	-	0.0	0.0

출처: 아시아종묘, BNK투자증권 추정 / 주: 2014년 이후 9월 결산, K-IFRS 연결 기준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7,99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486억원
52주최고가	7,990원
52주최저가	2,805원
상장주식수	608만주
자본금/액면가	30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1.6만주
60일평균거래대금	0.8억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주요주주및지분율	
류경오 등	61.7%

주자동향



윤관철

기업분석팀

gcyoon@bnkfn.co.kr

(02)3215-7502

최종경

스몰캡팀

choijk@bnkfn.co.kr

(02)3215-1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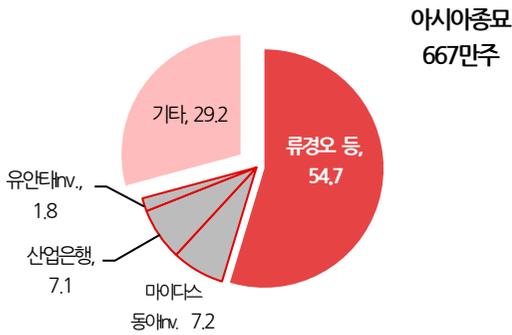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70: 아시아종묘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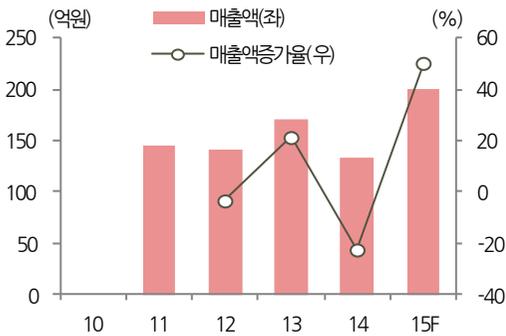
주: '15년 6월 상환전환우선주 포함(산업은행,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출처: 아시아종묘, BNK투자증권

Fig. 71: 아시아종묘 주요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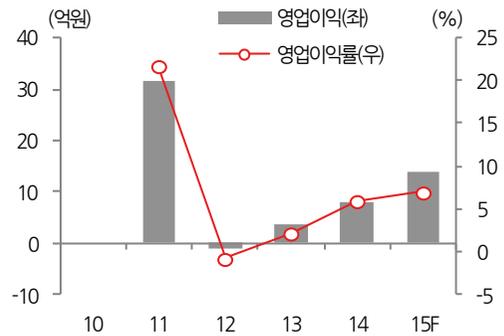
출처: 아시아종묘, BNK투자증권

Fig. 72: 아시아종묘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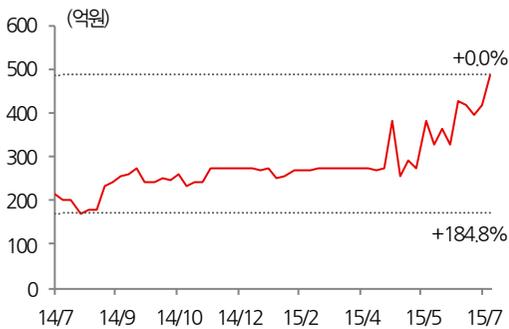
출처: 아시아종묘, BNK투자증권 / '14년 이후 9월 결산, K-IFRS 연결 기준

Fig. 73: 아시아종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출처: 아시아종묘, BNK투자증권 / '14년 이후 9월 결산, K-IFRS 연결 기준

Fig. 74: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75: 국내 기관과 외국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대주이엔티 (11492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설계에서 시공까지 최적화 된 이중보온관 전문 기업

설계에서 시공까지 최적화 된 기업

이중보온관, 엘리베이터 가이드레일, 기계설비공사 전문기업. 수도권 열배관망 구축사업에 따른 이중보온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해외 공사 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에 진출하며 사업다각화 전망.

독보적 시장지배력 유지 및 향후 신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동사는 대주중공업, 한국알루미나 등 13개의 관계회사 중 유일한 상장사로 '14년 기준 관계사 매출규모는 1조 3천억원.

매출비중은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 33.5%, 이중보온관 12.5%, 배관공사 25.5%, 기타 25.6%를 차지함('14년).

- 이중보온관: 국내 시장점유율 46%로 독보적 1위 업체, GS POWER 독점 공급. 설계부터 제작, 시공을 통한 사업영역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
- 엘리베이터 가이드레일: 국내 시장점유율 70%로 1위 업체. 국내 승강기 주요 5개 업체에 공급.
- '13년 7월 이후 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 손해액, 변제액 등을 조율 중으로 관련 절차 종료 후 코스닥 이전 상장 계획.
-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해외공사(마다가스카르공화국 및 모잠비크 배관공사)에 진출. 향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신사업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에 진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진단, 시설개체, 유지보수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 매출 증가 예상.

Fig. 76: 대주이엔티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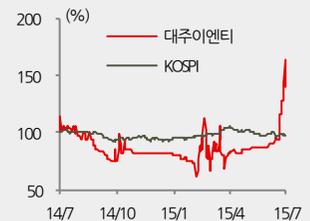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1,026	1,193	1,230	1,447	1,533
영업이익	41	48	34	52	60
세전이익	41	46	33	41	49
순이익	30	35	27	33	38
EPS (원)	875	1,021	765	959	1,098
증감률 (%)	-19.6	16.6	-25.1	25.4	14.6
PER (배)	-	-	14.4	8.0	12.0
PBR	-	-	1.2	0.8	1.2
EV/EBITDA	0.7	1.5	11.7	4.7	3.9
ROE (%)	12.7	13.0	8.8	10.1	10.5
배당수익률	-	-	0.0	0.0	0.0

출처: 대주이엔티, BNK투자증권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13,20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458억원
52주최고가	15,500원
52주최저가	5,800원
상장주식수	347만주
자본금/액면가	17억원/500원
60일평균거래량	0.5천주
60일평균거래대금	4.4백만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주요주주및지분율	
박광수 등	81.7%

주가동향



BNK스몰캡

이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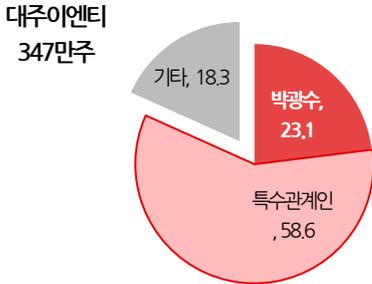
ana0128@bnkfn.co.kr
(02)3215-7560

최중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77: 대주이엔티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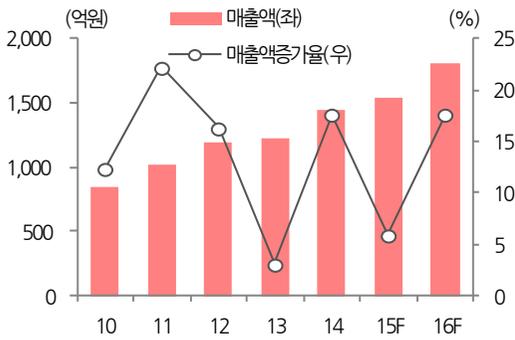
출처: 대주이엔티, BNK투자증권

Fig. 78: 대주이엔티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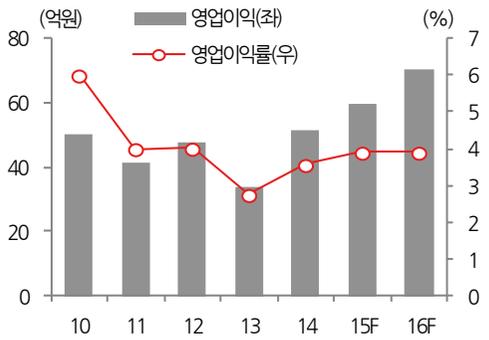
출처: 대주이엔티, BNK투자증권

Fig. 79: 대주이엔티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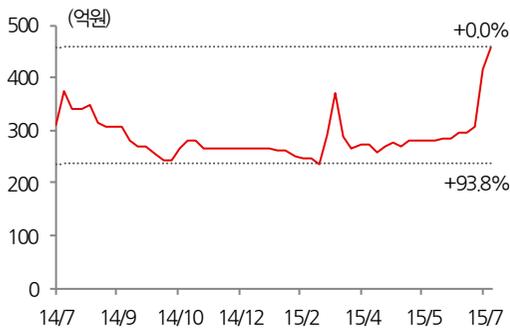
출처: 대주이엔티,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80: 대주이엔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출처: 대주이엔티,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81: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82: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비엔디생활건강 (21505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프리미엄 세제/비누 시장 선도 기업

친환경 세탁세제 전문 기업

친환경 세탁세제 전문 기업. '15년 3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전일 시가총액 380억원으로 상장일 대비 2.1배 증가함.

'14년 실적은 매출액 146억원(-13% YoY), 영업이익 17억원(-24% YoY)으로 전년비 감소했는데, 이는 홈쇼핑 직매입 영향(방송편성 지연)으로 판매가 일시 중단된 점에 기인함. '15년은 직매입 판매 계획이 없고, 판매채널 확대 효과로 실적 개선 여력이 높아 매출액 250억원(+71% YoY), 영업이익 30억원(+67% YoY)이 가능할 전망. 연말 신공장 완공으로 생산능력이 늘어나는 점 역시 성장 여력을 높이는 요인. '15년 하반기 코스닥 변경 상장 계획 중.

판매채널 확대+ 생산능력 증설 효과 본격화

생활용품(비누/세제) 시장 포화에도 친환경 세제를 포함한 프리미엄 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특히, 성분표시제가 도입되는 '15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세제 시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예상됨. 동사는 ISO, 로하스 인증 등 기존 합성세제와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며 홈쇼핑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 확대 중. 올해는 기존 채널 외에 CJ, 롯데, NS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판매 채널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됨. 뿐만 아니라 '16년부터는 공장 증설 효과 온기 반영되며 추가 채널 확충도 가능할 전망. 최근에는 지상파 광고를 통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판매 채널 다각화에 따른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16년 매출액 350억원, 순이익 45억원 / '17년 매출액 450억원, 순이익 58억원 / '18년 매출액 800억원, 순이익 100억원.

Fig. 83: 비엔디생활건강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75	168	146	250
영업이익	-1	23	18	30
세전이익	-1	23	18	31
순이익	-1	20	13	24
EPS (원)	-53	990	643	1,034
증감률 (%)	-	흑전	-35.0	60.8
PER (배)	-	-	-	18.4
PBR	-	-	-	10.9
EV/EBITDA	-	-	-	11.6
ROE (%)	-	196.3	72.8	97.8
배당수익률	-	-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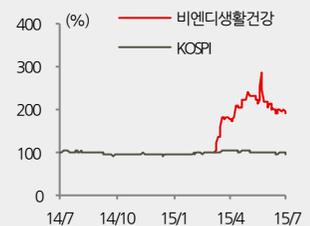
출처: 비엔디생활건강, BNK투자증권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17,10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356억원
52주최고가	25,800원
52주최저가	9,000원
상장주식수	208만주
자본금/액면가	2.1억원/ 100원
60일평균거래량	0.5만주
60일평균거래대금	0.9억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 -
주요주주및지분율	
이다니엘 등	67.6%

주가동향



BNK스몰캡

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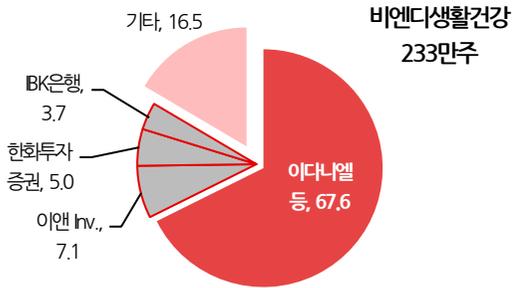
sjpark@bnkfn.co.kr
(02)3215-1527

최중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84: 비엔디생활건강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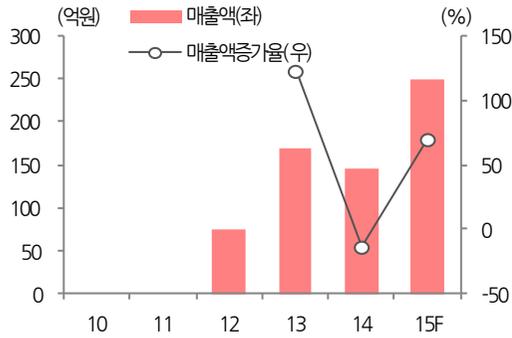
출처: 비엔디생활건강, BNK투자증권

Fig. 85: 비엔디생활건강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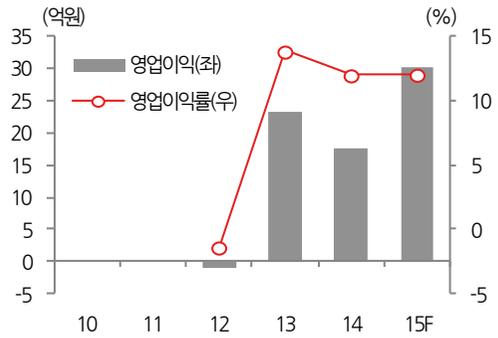
출처: 비엔디생활건강, BNK투자증권

Fig. 86: 비엔디생활건강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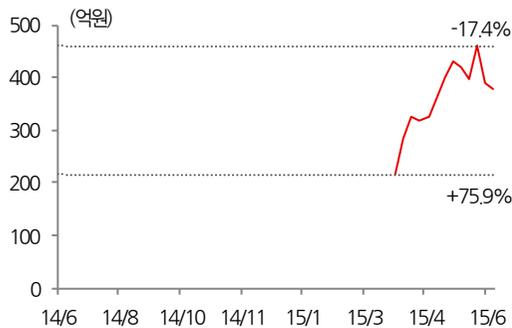
출처: 비엔디생활건강,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87: 비엔디생활건강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출처: 비엔디생활건강,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88: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89: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드림티엔터테인먼트 (22011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서 입지 강화

걸스데이 소속 연예기획사

음악 콘텐츠 기획/제작, 아티스트 발굴/육성, 스타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코넥스 상장사 웰메이드에당의 자회사. 대표 소속 연예인은 걸그룹 걸스데이. '14년 실적은 매출액 66억원(+107% YoY), 영업이익 21억원(+137% YoY), 당기순이익 19억원(+116% YoY)으로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함. 이는 걸스데이 광고 출연과 공연 수익 및 음반 판매 증가에 기인함. 동사는 '15년 매출액 130억원(+97% YoY), 영업이익 32억원(+52% YoY) 등 전년에 이은 높은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반기 ①걸스데이 일본 및 중국 진출, ②걸스데이 헤리의 '응답하라1988' 출연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무리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인수합병 등 소속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중

'15년 하반기는 MC몽 음반 발매 및 전국 공연, 5인조 신인 보이그룹 데뷔도 예정되어 있음. 걸스데이 외에 아티스트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중,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최근 모회사(웰메이드에당)과 함께 와이엠씨엔터테인먼트 지분 80% 취득. 지분율은 동사 41%, 웰메이드에당 39%로 동사가 와이엠씨엔터의 최대주주로 올라섬. 와이엠씨엔터는 휘성, 에일리, 마이티마우스, 럭키 등 10여 팀의 소속 연예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14년 실적은 매출액 65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을 기록함. 와이엠씨엔터의 인수에 따라 향후 동사의 연결실적으로 반영될 매출액은 약 60~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Fig. 90: 드림티엔터테인먼트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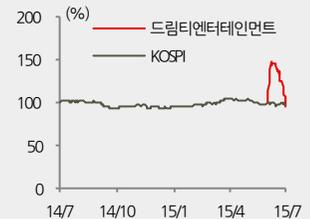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32	66	130
영업이익	9	21	32
세전이익	9	22	32
순이익	9	19	28
EPS (원)	175	382	515
증감률 (%)	-	117.7	34.8
PER (배)	-	-	8.7
PBR	-	-	5.3
EV/EBITDA	-	-0.8	5.3
ROE (%)	-18267.9	202.0	84.4
배당수익률	-	-	0.0

출처: 드림티엔터테인먼트, BNK투자증권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4,48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246억원
52주최고가	7,000원
52주최저가	3,400원
상장주식수	549만주
자본금/액면가	11억원/ 200원
60일평균거래량	2.4만주
60일평균거래대금	1.3억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 -
주요주주및지분율	
웰메이드에당	71.4%

주가동향



BNK스몰캡

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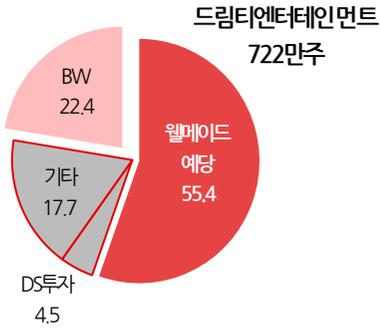
sjpark@bnkfn.co.kr
(02)3215-1527

최중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91: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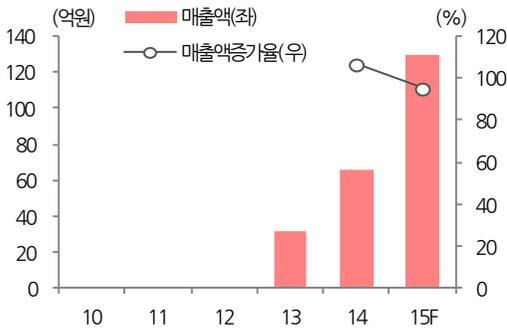
주: 상환전환우선주 포함/ 신주인수권부사채(BW) 45억원(전환가 2,800원)
출처: 드림티엔터테인먼트, BNK투자증권

Fig. 92: 드림티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속 연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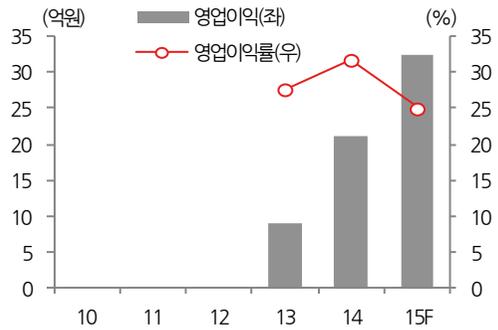
출처: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와이엠씨엔터테인먼트, BNK투자증권

Fig. 93: 드림티엔터테인먼트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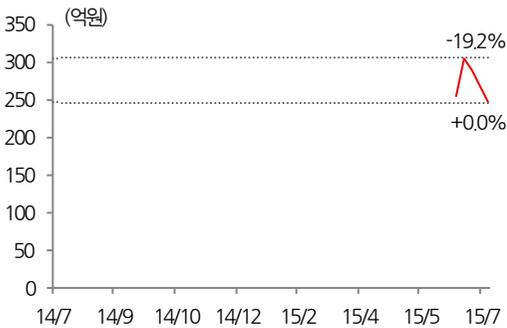
출처: 드림티엔터테인먼트,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94: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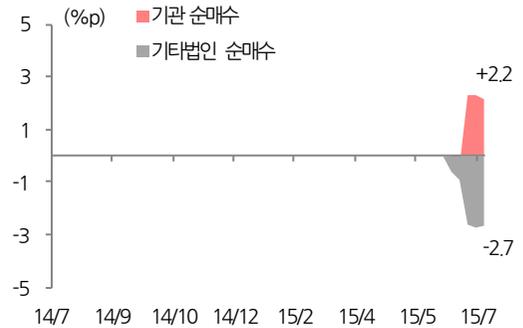
출처: 드림티엔터테인먼트,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95: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96: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태양기계 (11610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중대형 상용차 부품 제조 기업

신규 수주 및 고부가 부품 판매 본격화

자동차부품 개발 및 제조/판매 기업. '13년 7월 코넥스시장 개시와 함께 상장되어 시가총액이 전일 238억원을 기록해 +34.1% 상승함.

'14년은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일회적 비용 증가로 매출액 348억원(+5.2% YoY), 영업이익 2억원(-90.6% YoY), 당기순이익 -8억원(적자전환) 기록함. 동사는 '15년 매출액 415억원, 영업이익 44억원, 순이익 27억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15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5억원, 영업이익 5억원, 순이익 3억원으로 연간 사업계획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분기 QT(신차) 양산 본격화 등 신규 수주 및 고부가 제품 확대를 감안할 때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 유효. '16년 하반기 코스닥시장 변경 상장 계획 중.

해외 신규 매출처 확보로 성장세 강화 전망

동사의 제품은 브라켓, EGR 하우징, 스테빌라이저캠하우징 등 중대형 상용차에 사용되는 부품임. 주요 매출처는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으나 해외 완성차, 중장비 업체 등으로 거래처 다변화 추진 중. 실제 GM, 포드, 이스즈, 아우디, 피아트 등으로 부품 수주 및 납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비중 역시 '11년 31%에서 '14년 42%로 확대됨. 향후 고객사 확대를 통해 수출비중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고, 수출의 경우 상대적 마진율도 높아 수익성 개선 추세를 뚜렷할 전망이다.

동사는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비즈니스와 인수합병을 시도할 가능성 존재함. 다만, 아직 구체적 청사진과 시점 등이 제시되지 않아 단기간 내 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오히려 '09년에 진출한 의료기기부문 사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

Fig. 97: 태양기계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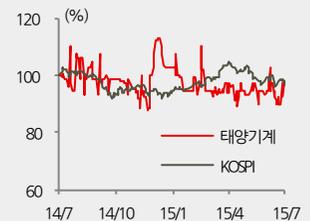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285	307	331	348	415
영업이익	17	23	24	2	44
세전이익	8	12	15	-8	31
순이익	7	12	14	-5	24
EPS (원)	153	198	218	-73	378
증감률 (%)	0.4	29.7	10.0	적전	흑전
PER (배)	-	-	19.5	-	10.1
PBR	-	-	1.8	2.0	1.5
EV/EBITDA	-	-	9.7	18.6	5.9
ROE (%)	7.1	10.6	10.2	-3.2	15.8
배당수익률	-	-	0.7	0.7	0.8

출처: 태양기계, BNK투자증권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3,815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238억원
52주최고가	4,550원
52주최저가	3,195원
상장주식수	624만주
자본금/액면가	31억원/500원
60일평균거래량	0.5천주
60일평균거래대금	1.8백만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주요주주및지분율	
박창엽 등	52.0%

주가동향



BNK스몰캡

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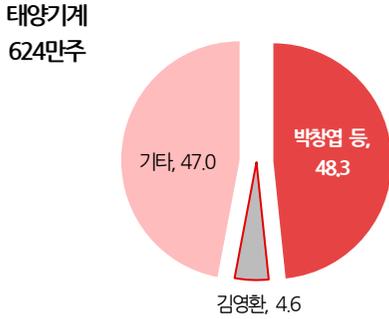
sjpark@bnkfn.co.kr
(02)3215-1527

최중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98: 태양기계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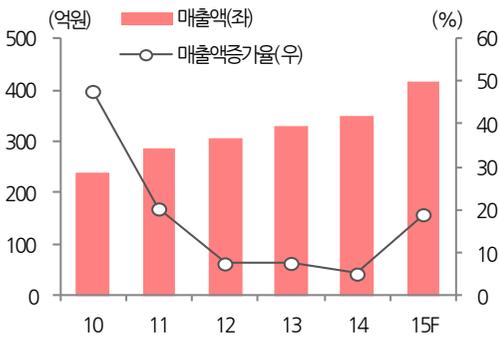
출처: 태양기계, BNK투자증권

Fig. 99: 태양기계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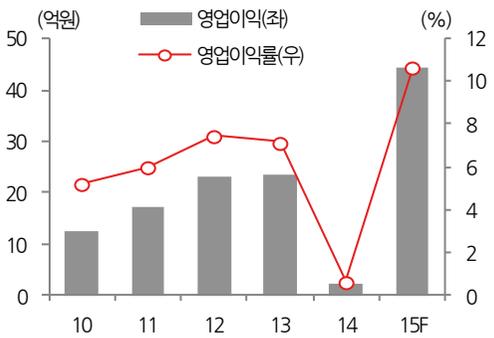
출처: 태양기계, BNK투자증권

Fig. 100: 태양기계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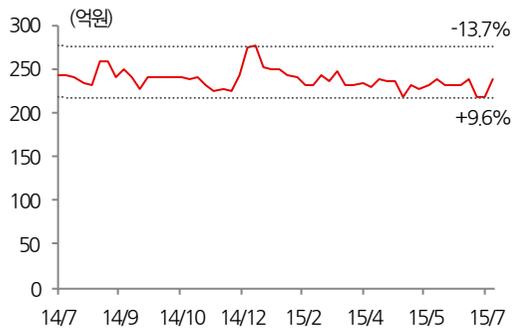
출처: 태양기계,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101: 태양기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출처: 태양기계,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102: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03: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열제어 장비 전문 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고성장 지속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 전문 기업. '14년 12월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전일 시가총액 178억원으로 상장일 대비 11.1% 상승함.

'14년 실적은 매출액 404억원, 영업이익 24억원으로 '13년 대비 크게 개선됨. 이는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수요 증가와 LCD 패널 출하량 호조에 기인함. '15년 실적은 업황 개선 및 매출처 다각화 등에 힘입어 매출액 800억원, 영업이익 80억원 이상이 가능할 전망. '15년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42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 고성장 중이며, 상반기말 기준 수주잔고는 120억원으로 파악됨. '15년 하반기 코스닥시장 변경 상장 계획 중.

시장환경 변화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

동사는 반도체, FPD 제조 공정 중 열제어 및 열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Bake Oven, Furnace, Chamber, Chiller, Autoclave 등의 장비를 제조하고 있음. 최근 ①반도체 공정 미세화 및 멀티칩 보편화 영향으로 소형/고사양 애플리케이션의 온도제어가 요구되고 있으며, ②Flexible OLED의 스마트폰 탑재 본격화로 대면적 glass에 대한 온도제어와 신기술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동사의 가치는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부문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Flexible OLED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16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임. 생산 규모 증가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 확대는 동사의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을 이끌 전망이다.

Fig. 104: 에스티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325	233	221	404	800
영업이익	19	4	0	24	80
세전이익	15	-3	-2	13	76
순이익	15	2	3	13	57
EPS (원)	621	79	106	537	1,722
증감률 (%)	-27.6	-87.3	34.5	404.9	220.8
PER (배)	-	-	-	12.1	4.2
PBR	-	-	-	0.7	0.6
EV/EBITDA	-	-	-	7.0	2.8
ROE (%)	12.6	1.2	1.2	6.1	22.6
배당수익률	-	-	-	0.0	0.0

출처: 에스티, BNK투자증권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7,22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178억원
52주최고가	15,600원
52주최저가	3,570원
상장주식수	247만주
자본금/액면가	12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0천주
60일평균거래대금	0.3백만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주요주주및지분율	
장동복 등	35.0%

주가동향



BNK스몰캡

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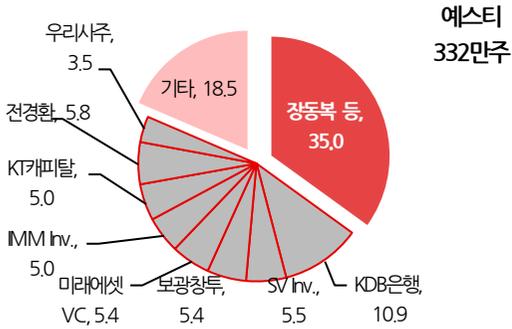
sjpark@bnkfn.co.kr
(02)3215-1527

최중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105: 예스티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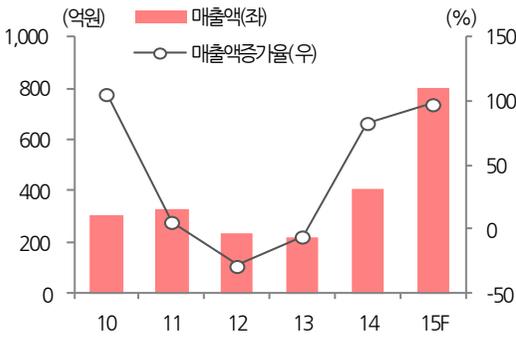
출처: 예스티, BNK투자증권

Fig. 106: 예스티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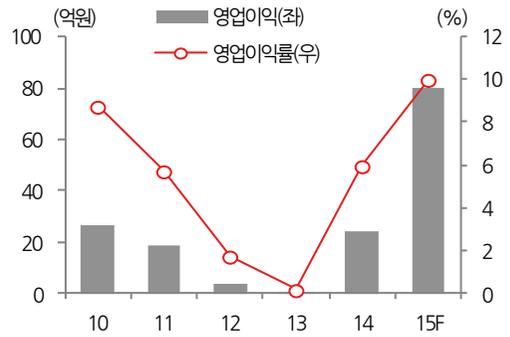
주: 주요제품군은 Bake Oven, Furnace, Chamber, Chiler, Autoclave 등
출처: 예스티, BNK투자증권

Fig. 107: 예스티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출처: 예스티, BNK투자증권 / K-IFRS 별도 기준

Fig. 108: 예스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출처: 예스티, BNK투자증권 / K-IFRS 별도 기준

Fig. 109: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10: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그린플러스 (18623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대규모화 되는 온실사업의 수혜주

국내 최대 온실사업 total solution 제공업체

대형식물원 및 첨단유리온실 등 온실관련 창호 및 강구조물 공사 전문기업으로 '13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 전일 시가총액은 158억원으로 상장가 대비 29.2% 증가함.

'14년은 매출액은 378억원으로 농촌진흥청이전 및 일본수출확대 등 온실사업 부문 매출증대(141억원, +86.8% YoY)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7% 증가. 반면 하반기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7% 감소한 16억원을 기록. 하지만 영업외비용의 효과적인 관리로 순이익은 1.9% 증가한 4억원을 기록.

'15년에는 온실사업부문 해외매출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24.4% 증가한 470억원의 매출액이 기대되며, 영업이익 역시 수익성 좋은 해외온실사업부문 매출 확대와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 전년 대비 163.3% 증가한 42억원에 이를 전망. '16년 2분기 코스닥 변경 상장 계획 중.

첨단온실사업 성장세 및 식물공장부문의 신성장동력화에 주목

국내 대형 첨단온실설비공급 및 일본향 수출확대로 온실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13년 24.5%에서 '15년 4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난 3년간 수행해온 신개념 온실연구 국책연구과제(설치비 60% 감소, 생산성 80% 향상) 연말 완료시 내년부터 식물공장부문의 신성장동력화 기대. 국내 간척지 온실의 대규모화 및 중앙아시아/러시아 등 교체주기에 도달한 해외 시장 대응 가능할 전망.

Fig. 111: 그린플러스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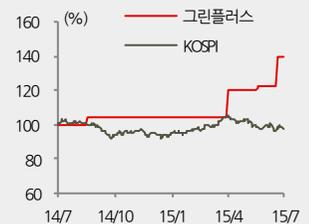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362	383	308	378	470
영업이익	12	21	18	16	42
세전이익	-3	8	4	5	31
순이익	-4	8	4	4	25
EPS (원)	-193	388	199	180	847
증감률 (%)	적전	흑전	-48.7	-9.5	370.5
PER (배)	-	-	23.8	27.8	7.9
PBR	-	-	0.8	1.0	1.4
EV/EBITDA	-	-	9.2	10.1	6.0
ROE (%)	-3.8	6.3	3.4	3.7	22.5
배당수익률	-	-	0.0	0.0	0.0

출처: 그린플러스, BNK투자증권 추정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6,720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158억원
52주최고가	6,720원
52주최저가	4,800원
상장주식수	236만주
자본금/액면가	12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0천주
60일평균거래대금	0.0백만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11만주 / 4.6%
주요주주및지분율	
박영환 등	50.9%

주가동향



변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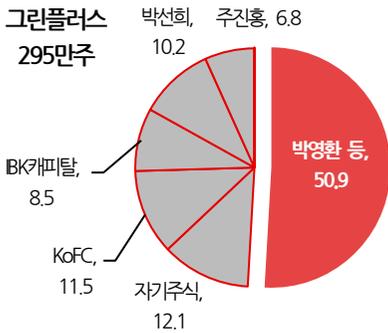
리서치센터
sjbyun@bnkfn.co.kr
(02)3215-7568

최종경

스몰캡팀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112: 그린플러스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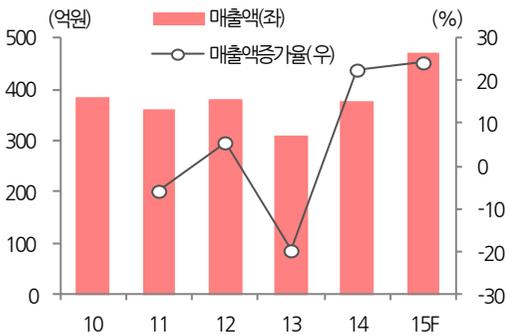
주: 상환전환우선주 포함 (KoFC, IBK캐피탈)
출처: 그린플러스, BNK투자증권

Fig. 113: 그린플러스 첨단유리온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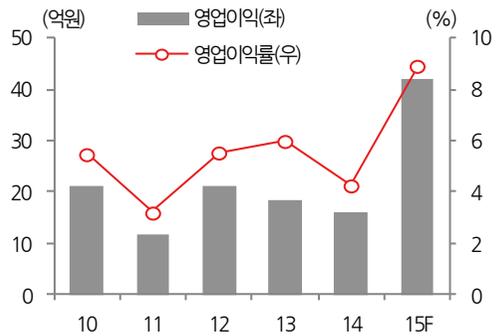
주: 동부팜 화옹 (11ha) / 재배작물: 토마토, 파프리카 등
출처: 그린플러스, BNK투자증권

Fig. 114: 그린플러스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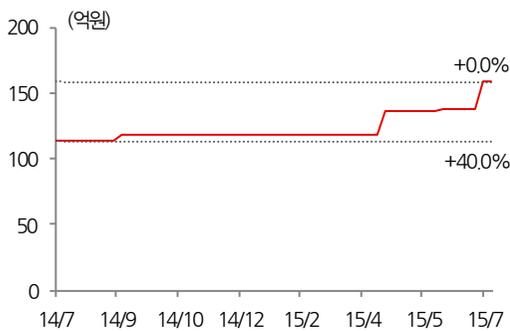
출처: 그린플러스,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115: 그린플러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출처: 그린플러스,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116: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17: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디피앤케이 (189700)

코넥스 상장기업 보고서

BNK 투자증권

중국으로 확장하는 의류 강소기업

홈쇼핑 채널에 특화된 의류업체

홈쇼핑 채널을 통해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의류전문업체. 국내 6개 TV홈쇼핑에 9가지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홈쇼핑채널을 통한 매출이 전체에서 약 80%를 차지하며 연도별로 각 홈쇼핑업체와의 기획판매에 따라 홈쇼핑 채널별 비중은 달라짐.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하여 화장품/뷰얼리 등 사업아이템을 확장하고 있음.

'14년 매출액 125억원(+60.3% YoY), 영업이익 18억원(+260% YoY) 등 큰 폭의 성장세 시현. 성장의 주요 요인은 현대홈쇼핑으로 판매채널이 확대된 점과 신진 디자이너와 협업한 중저가 브랜드의 성공적인 런칭에 기인함. 동사와 비슷한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 3~4개 회사 정도로 파악됨. 하지만 경쟁사에 비해 의류 기획, 디자인, 생산, 마케팅, 물류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홈쇼핑 업체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편임.

성장요인 다수 잠재

①코 앞으로 다가온 중국 홈쇼핑 채널 입점('15년 9~10월 중)이 첫번째 성장요인. 중국 전국 매출 2위인 홈쇼핑 업체(해피고)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②국내 홈쇼핑 채널 증가. 기존 홈쇼핑에서 공영홈쇼핑으로 판매 채널 확대 예상. ③현재는 소폭 적자 수준이나 의류사업을 기반으로 IT 솔루션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 진행.(인쇄물 융합 AR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 가상피팅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매직미러 사업)

'15년 매출액 200억원, 순이익 20억원 가이드스 제시.

Fig. 118: 디피앤케이 연결재무제표 요약[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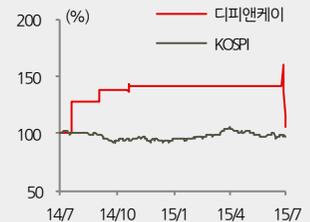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65	80	78	125	200
영업이익	3	2	5	18	28
세전이익	3	0.4	5	17	26
순이익	3	0.3	4	13	20
EPS (원)	231	7	77	211	275
증감률 (%)	-	-97.0	997.1	175.3	30.0
PER (배)	-	-	-	12.0	6.9
PBR	-	-	-	3.4	2.8
EV/EBITDA	-	-	-	10.7	6.0
ROE (%)	36.9	2.0	19.2	37.7	40.0
배당수익률	-	-	-	0.0	0.0

출처: 디피앤케이, BNK투자증권 추정 / K-IFRS 연결 기준, 2011년은 내부 결산 재무제표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1,905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139억원
52주최고가	3,650원
52주최저가	1,905원
상장주식수	729만주
자본금/액면가	36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0천주
60일평균거래대금	0.0백만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
주요주주및지분율	
이창세 등	52.7%

주가동향



신건식

기업분석팀

gsshin@bnkfn.co.kr

(02)3215-7503

최종경

스몰캡팀

choijk@bnkfn.co.kr

(02)3215-1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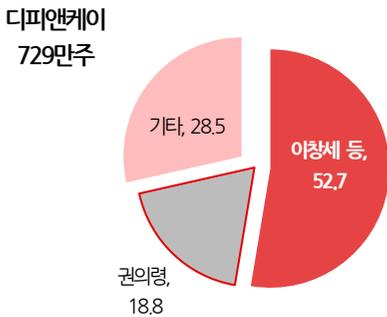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119: 디피앤케이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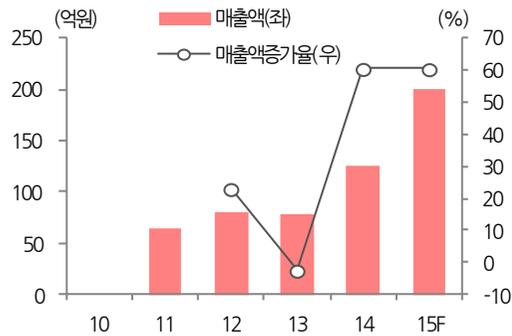
주: '15년 1월 유상증자, 2월 무상증자 반영
출처: 디피앤케이, BNK투자증권

Fig. 120: 디피앤케이 주요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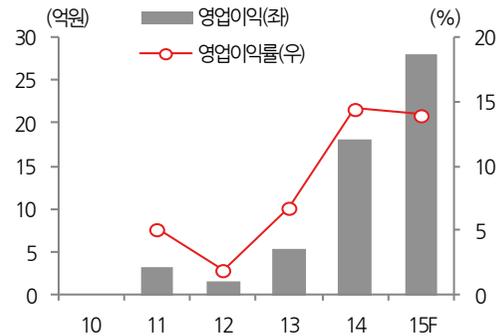
주: 프리디아, 라뮤리나, 로베트볼류 등 9개 패션브랜드 판매
출처: 디피앤케이, BNK투자증권

Fig. 121: 디피앤케이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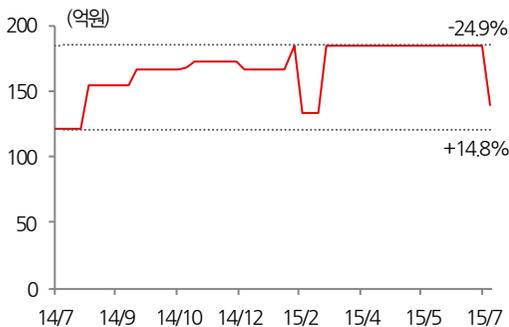
출처: 디피앤케이, BNK투자증권 / '14년 이후 K-IFRS 연결 기준

Fig. 122: 디피앤케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출처: 디피앤케이, BNK투자증권 / '14년 이후 K-IFRS 연결 기준

Fig. 123: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24: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PC단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자, 보안제품 세이프퍼씨(SafePC)출시를 통해 지금까지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약 1,400여곳에 서비스 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 공급업체

올해 신규 모델 출시를 통한 신규고객 창출 기대

'15년 예상 [별도]순이익 기준 매출액 162억원(+7.4% YoY), 영업이익 18억원(+27.5% YoY) 예상.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데스크톱PC에서 핵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국내 대표적인 B2B전용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 동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콘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서비스는 '14년 2,687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13년 대비 4.3%가 성장하였고, 시장의 성장률은 8.7%로 '16년 3,270억원의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 최근 개인정보보호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콘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15년에는 당사의 기술이 집약된 에이전트 통합 보안 제품인 SafePCEnterprise 5.0를 출시하여 기존 고객 확대 및 신규 고객 창출을 기대.

'17년 새로운 정보보안 패러다임 리드할 것으로 예상

신규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의 재해 복구(DRaaS) 솔루션과 모바일 정보유출 통제(DLP) 솔루션 출시 및 고급 분석을 통한 대용량 처리 정보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새로운 정보보안 시스템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Fig. 125: 닉스테크 개별재무제표 요약[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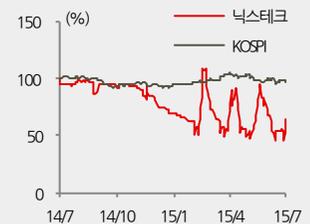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F
매출액 (억원)	127	139	156	151	162
영업이익	7	9	15	14	18
세전이익	6	8	13	6	16
순이익	7	8	13	10	14
EPS (원)	128	138	241	178	256
증감률 (%)	48.0	7.7	74.4	-25.9	43.4
PER (배)	-	-	7.0	15.4	9.4
PBR	-	-	1.1	1.6	1.2
EV/EBITDA	1.4	0.5	4.0	6.4	4.9
ROE (%)	11.9	11.4	17.6	11.4	14.2
배당수익률	-	-	0.0	0.0	0.0

출처: 닉스테크, BNK투자증권

투자 의견	Not Rated
[-]	
목표주가(6M)	-원
[-]	
현재주가	2,415원
2015/7/24	

주식지표	
시가총액	135억원
52주최고가	4,040원
52주최저가	1,600원
상장주식수	560만주
자본금/액면가	28억원/ 500원
60일평균거래량	0.6천주
60일평균거래대금	1.4백만원
외국인지분율	0.0%
자기주식수	6.8만주/ 1.2%
주요주주및지분율	
박동훈 등	57.0%

주가동향



BNK스몰캡

이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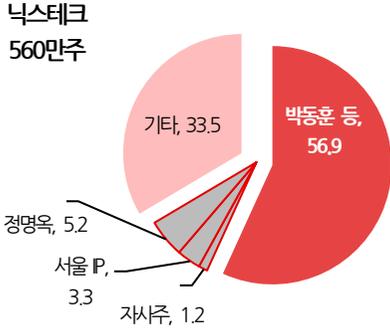
ana0128@bnkfn.co.kr
(02)3215-7560

최종경

choijk@bnkfn.co.kr
(02)3215-1575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승센터빌딩 17층
www.bnkfn.co.kr

Fig. 126: 닥스테크 주요주주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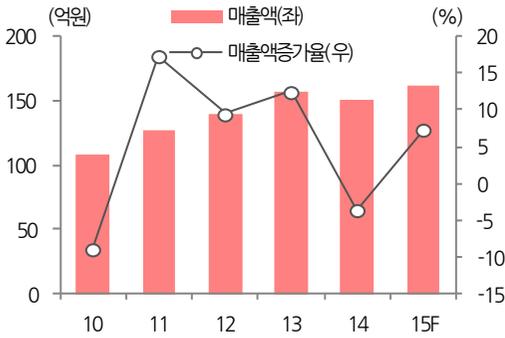
출처: 닥스테크, BNK투자증권

Fig. 127: 닥스테크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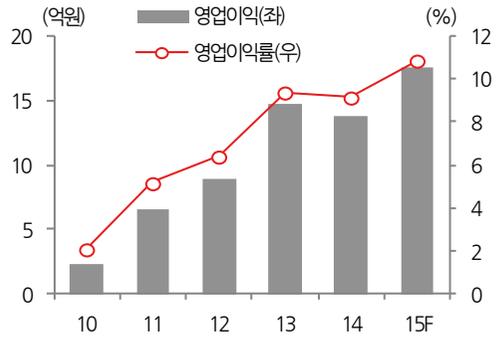
출처: 닥스테크, BNK투자증권

Fig. 128: 닥스테크 매출액과 매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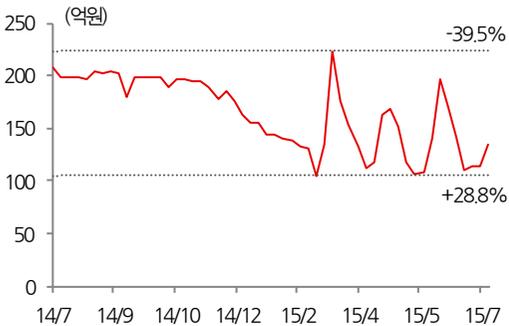
출처: 닥스테크,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129: 닥스테크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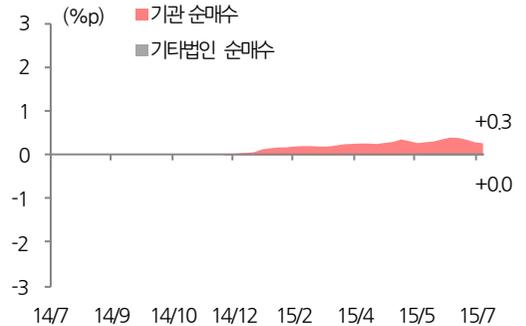
출처: 닥스테크, BNK투자증권 / K-IFRS 개별 기준

Fig. 130: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Fig. 131: 국내 기관과 기타법인 누적순매수 비중



출처: KRX [자본시장통계포털]. BNK투자증권

BNK 투자증권

투자등급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 대비 해당 종목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기업: 6개월 예상수익률
매수(Buy) +10% 이상,
보유(Hold) -10~+10%,
매도(Sell) -10% 이하
산업: 6개월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비중확대(Overweight),
중립(Neutral),
비중축소(underweight)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
(2015. 6. 30 기준)
매수(Buy) 100%
보유(Hold) 0%
매도(Sell) 0%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 레포트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77-2601 www.bnkfn.co.kr

<본사/영업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1(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별관 3층, 4층 / ☎ 051-669-8000 / Fax. 051-669-8009

<서울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신송센터빌딩 16층, 17층 / ☎ 02-3215-1500 / Fax. 02-786-2998

<사상지점>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5(주례동) 부산은행 사상지점 1층 / ☎ 051-329-4300 / Fax. 051-329-4399

<경남영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BNK경남은행본점 1층 / ☎ 055-290-7100 / Fax. 055-290-7199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저축은행 / **BNK**신용정보 / **BNK**시스템